

- 사명과 책임을 다해 진실과 정의를 추구한다.
- 풍요로운 국가 건설과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 공정정보도 방송을 수행함이 이 시대의 오정임을 깊이 인식한다.
-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불의로부터 지켜 나간다.

“언론 자유 중요성, 진실 보도 당위성을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 될 것”

2023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시상식 상황리에 맞춰 수상자들 “갈등·분쟁 현장 기록하는 기자들의 노고 알려지길”

올 한 해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인권과 정의를 구현하는 현장을 기록한 공로를 인정받은 영상기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나준영)와 5.18기념재단(이사장 원순석)이 주최하고 광주광역시와 후원하는 2023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러시아 내부의 푸틴 정권 비판, 전쟁반대의 목소리 전한 기자들에게 ‘기रो에선 세계상’

경쟁부문 대상인 ‘기रो에 선 세계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내부 이야기를 담은 <인사이드 러시아> 푸틴의 국내 전쟁의 취재진 게스빈 모하마드-알렉산드라 오디노바-바실리 콜로틸로프-유리 미하일로비치가 수상했다.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아흐메드 아사르-로이터통신 아시아 비디오팀부문 총괄 편집장)는 “이 보도는 그동안 외신기자들의 취재 급지와 철수로 제대로 보도되지 못했던 러시아 내부의 푸틴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저항들, 전쟁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민주주의와 언론·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다양한 현장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록해 고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바실리 콜로틸로프는 시상식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선전에 맞서 우리 다큐멘터리에 참여해 주신 용감한 분들에게 이 상을 드리고 싶다”며 “우리가 이런 상을 받음으로 인해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권위주의적인 악행들과, 이런 일을 취재하기 위한 기자들의 노고가 보다 더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부문 우크라이나 전쟁현장르포 <바흐무트 전투> 취재한 기자들 수상

뉴스 부문은 2022년 8월 러시아의 포격과 공습이 끊이지 않았던 우크라이나 동남부 바흐무트에 2주일 동안 머물며 전쟁의 참혹함을 기록한 <바흐무트 전투>의 벤자민 솔로몬·아담 데지데리오·줄리아 코체토바에게 돌아갔다.

아담 데지데리오는 “우리는 아무 죄가 없는 민간인들이 도시에서 어떤 어려움

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며 “전쟁의 참상에도 바흐무트에서 회복력을 갖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통해 전쟁이 민간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줄리아 코체토바는 바흐무트에 남은 마지막 어린이 소냐, 바흐무트를 지키기 위해 남은 마지막 소방관 제냐, 개혁과 자유를 찾아 벨라루스에서 우크라이나로 온 뒤 벨라루스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박격포 부대를 지휘하는 안, 네 번이나 포격당한 학교에서 일을 하며 주민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이리아 등 작품에 등장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사실의 이면에는 수백, 수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위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그 모든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벤자민 솔로몬은 가자 지구를 취재 중이어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우리의 수상이 언론을 탄압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길’..

특집부문에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내 러시아의 소프트웨어> 보도한 두 명의 기자들 특집 부문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생한 러시아 바그너 그룹의 폭력과 학대를 보도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내 러시아의 소프트웨어> 취재진 캐롤 발라드와 클레망 디 로마가 받았다. 민간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정치권력과 유착해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키워가는 러시아의 대리자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2018년 바그너 그룹을 취재하다 살해당한 기자들의 취재를 동료 기자들이 이어받아 완성했다.

캐롤 발라드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세 명의 동료와 2019년 현장에서 바그너 그룹에 대한 취재를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며 “오늘 수상의 영예를 팔레스타인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보다 앞서 취재하다 목숨을 잃은 세 명의 기자들에게 헌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발라드는 이어 “우리는 오늘의 수상이 언론을 탄압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무리 많은 기자들을 죽여도 그 이후에 더 많은 기자



들이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클레망 디 로마도 “지금 세계에서는 많은 참혹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결코 그것을 좌시해선 안 될 것”이라며 “이런 보도를 통해 상호 이해하게 되고, 인종 차별이나 참혹한 현실이 멈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경쟁부문 공로상인 오월광주상,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기록한 영상기자들에게

“지구 반대편에서 여전히 체르노빌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사람들, 고마워”

비경쟁부문 공로상인 오월광주상은 방사능 피폭 위험을 감수하고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현장을 영상에 담은 ‘구(舊) 소련 우크라이나 중앙TV’ 소속 영상기자 블라디미르 셰브첸코·유리 볼다코프·빅토르 크리프첸코·블라디미르 타란첸코 등 4명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1986년 4월 26일 발생한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제4호기의 대형 폭발사고와 수습 과정을 보호 장비도 없이 4개월간 취재했는데, 그 결과 피폭의 여파로 폐암 선고를 받고 사망하거나, 심각한 피폭 후유증에 오랜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도 유일한 생존자인 유리 볼다코프가 오랜 병으로 시상식에 참석 못해 아나스키비네치가 주한 우크라이나 부대사가 대리 수상했다. 스킨비네치가 부대사는 “네 분의 자취를 따라 지금 우크라이나 기자들도 자기 목숨을 전선에 내놓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보도하고 있다”며 “2022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에 의해 68명의 기자가 사망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분들을 기리고 싶다”고 말했다.

유일한 생존자인 유리 볼다코프는 손

녀 아나스타샤 리지나 씨를 통해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영상으로 수상 소감을 전했다.

리지나 씨는 “체르노빌 참사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났고 현재 세계에 많은 사건들이 발생해 체르노빌 참사에 대한 관심이 줄었는데도 지구 반대편에서 개최되는 힌츠페터국제보도상은 여전히 체르노빌에 있던 사람들의 업적을 기억하고 기리는 사람들이 있다”며 “할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 줘서 고맙다”고 전했다.

올해 심사위원장을 맡은 아흐메드 아사르는 “2023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심사를 하면서 나와 심사위원들은 수많은 기자들의 진실을 향한 멈추지 않는 의지와, 진실을 알림으로써 세계에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이번 국제보도상은 언론 자유가 왜 중요한 것인지, 왜 우리가 계속해서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언론이 독자적으로 유지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를 상기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사르 위원장은 이어 “힌츠페터가 1980년에 광주에서 했던 일과 같이 오늘날 수많은 기자들은 용기와 의지를 갖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도 두 개의 전쟁 현장과 세계의 분쟁 지역에서 일하는 많은 기자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힌츠페터국제보도상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의 기자 정신을 기리기 위해 한국영상기자협회와 5.18기념재단이 제정한 상으로, 각 부문 수상자들에게는 부문별로 미화 1만 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홀수 해는 서울, 짝수 해는 광주에서 번갈아가며 열린다.

이날 시상식은 MBC 이정민 아나운서

영상기자들이 뽑은 2023년 10대 뉴스



후쿠시마오염수방류, 이스라엘하마스전쟁
평화, 안전, 환경의 위험 높았던 2023년

오송지하차도참사, 서이초교사사망사건, 세계잼버리조기폐영 등
우리사회의 민낯 보여 준 1년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나준영)는 지난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전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영상기자가 뽑은 2023년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영상기자가 뽑은 10대 뉴스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청주 오송 공평 지하차도 참사, 강릉 전세사기, 서이초 교사 사망 등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부정적인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우울한 뉴스 속에서도 전 국민을 기쁘게 한 ‘굿 뉴스’는 있었다. 영상기자들은 올해의 굿뉴스메이커에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의 주역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선정했다. 항우연의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우주 개발 기술 분야에서 독자 기술로 1등급 실용 위성을 발사하는 능력을 입증한 7번째 국가가 되었다.

<영상기자가 뽑은 2023년 올해의 10대뉴스>

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2. 청주 오송공평지하차도 참사 피해와 지자체 대처 논란
3.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4.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전국교사 시위
- 5.故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논란과 박정호 해병 수사단장 항명사건
6.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부실운영과 조기 폐영 따른 국제망신
7. 홍범도 장군 및 독립유공자 홍상 욱사 퇴출 논란
8. 수원, 인천, 동탄 등 강릉전세사기 피해 속출
9.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10. 함께 출산율 0.7명대 진입

영상기자가 뽑은 올해의 굿뉴스메이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의 주역들

안경숙 기자 cat1006@naver.com

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광주광역시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광주MBC 김나곤 사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덕 민주당 원내 대변인 등 정·관계 인사들과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 독일 대사, 아나스키비네치가 주한 우크라이나 부대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수상자들은 시상식을 전후로 한국의 영상기자들과 함께 조직위원회가 마련한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다. 시상식 전날인 11월 7일에는 ‘힌츠페터국제보도상으로 본 전쟁과 인간’ 특별 세미나에 참석하고, 시상식 당일에는 본 행사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차담회를 가졌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전하는 진실이 전쟁을 멈추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진실을 알리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까지 건 언론인 여러분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

린다”고 말했다. 11월 9일~10일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 5.18 구묘역에서 힌츠페터 묘역을 참배하고 5.18 현장을 탐방했으며, 광주MBC <시사용광로>와 <뉴스7> 등 다양한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해 취재 뒷이야기를 풀어놓기도 했다.

나준영 힌츠페터국제보도상 공동위원장은 “두 차례의 행사를 거치며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이 단순히 상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갖고 연대하는 독특한 국제보도상이라는 인식’이 국내외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수상자와 국내의 영상 기자, 언론인, 시민들이 교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수상작에 대한 국내외 시민사회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이들이 전하는 문제들을 지원하고 돕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국제적 연대를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상이 발전해 갈 것이다.”고 밝혔다.

안경숙 기자 cat1006@naver.com

일상을
플랫폼하다



LG유플러스 4대 플랫폼

초개인화된 맞춤형 통신 경험을 제공하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_너겟

축구, 야구, 골프 등 모든 스포츠 팬을 위한

놀이 플랫폼_스포키

아이의 배움습관을 키우는 국내 최초 맞춤 교육 서비스,

성장케어 플랫폼_아이들나라

메타버스 공간에서 친구들과 실감나게 체험하며 학습하는

Web 3.0 플랫폼_키즈토피아

LG유플러스의 4대 플랫폼이
모두의 일상을 원드롭하게 바꿨다



‘2023전국신입주니어영상기자연수’ 11월30일부터 2박3일간 강릉서 열려

영상저널리즘의 역사와 변화, 국제보도, 기획보도, 영상보도가이드라인 관련 교육
전국 1~2년차 영상기자들의 교류시간, 멘토선배들과의 대화, 역사문화체험 활동도 가져



상기록 500일 금강비행’을 제작한 경험을 후배기자들에게 공유했다. 또, 2020년부터 22년까지 KBS대전의 온라인영상뉴스 ‘월다큐 <달그릇>’을 기획, 제작하고, 여기서 다루었던 아이템 중 100세에 가까운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의 증언과 일본의 외면과 왜곡을 고발한 인터뷰뉴스들을 ‘KBS대전 창사80주년 UHD특집 <외면의 기록, 생존자>’라는 다큐멘터리로 발전시키고, 3.1절특집 다큐를 전국방송으로까지 확대 시킨 자신의 제작경험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영상기자 제작프로그램의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래이션다큐제작의 기획과 제작노하우에 대해 참석자들의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이스라엘-하마스전쟁’의 생생한 현장취재와 이스라엘군의 ‘아이언돔시스템’이 팔레스타인 미사일을 요격하는 장면을 직접 영상취재해 <제113회 이달의영상기자상> ‘국제통일보도부문상’을 수상하게 된 JTBC 황현우 기자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올해 ‘이스라엘-하마스전쟁’을 현장취재한 MBC 현기택 기자가 자신들이 겪은 국제분쟁보도의 취재경험과 위험한 분쟁지역 보도를 위한 취재, 보도의 준비, 현장취재의 주의점, 영상기자와 취재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후배 영상기자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협회가 제정하고 현장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영상보도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신입주니어영상기자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궁금해 하는 문제들을 공동저자인 언론중재위원회 양재규 변호사가 직접 강의하고 참석자들과 토론하는 교육도 진행되었다.

한편, 이번 연수는 7명의 선배영상기자들이 멘토로 참여해 연수기간 동안 신입주니어회원들과 다양한 영상기자 업무와 생활에 대해 조언하고, 후배들의 궁금증과 고민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강릉 아르떼뮤지엄과 강릉역사문화시설 견학을 통해, 미디어아트와 전통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협회는 앞으로도 신입주니어회원 연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원연수에, 영상기자상 수상자나 중요한 취재, 보도 노하우를 가진 현장기자들을 초청해 노하우를 공유하고, 토론회하도록 해 회원들의 취재, 제작 업무에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첫 날 연수는 ‘영상저널리즘의 역사와 미래’라는 주제로 나준영 협회장이 한국영상기자의 역사와 영상저널리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강의했다. ‘영상취재장비의 발전과 영상저널리즘의 변화’라는 주제로 두 번째 교육을 이어간 충북MBC 김병수 부장은 필름카메라로부터 시작해 ENG카메라, 디지털카메라로 이어진 영상취재장비의 변화와 장비의 특성에 대해 강의했다. 또, 이런 변화가 만든 취재, 보도방식의 변화가 앞으로 펼쳐질 생생형AI의 활용이 확대된 방송제작환경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과 그 시대의 중심에서 활동할 후배영상기자들이 어떤 고민과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둘째 날, 첫 교육은 ‘영상기자만의 기획보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을 주제로 KBS대전 심각현 영상기자가 강의했다. 심 기자는 2010년대 중반 드론을 이용한 데일리 영상뉴스를 기획해 제작하고, 이 취재콘텐츠들을 재구성하고 보완해 제29회 한국영상기자상 대상을 수상한 보도다큐멘터리 ‘영

2023년 뉴스현장의 최일선에서 현장기자로서 웃고, 울고, 고생한 당신에게

한국영상기자협회장_ 나준영



국내적으로는 ‘10.29이태원참사’의 아픔과 고통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과 공포를 끝내지 못한 채, 시작한 2023년은 육십간지 상 ‘갑은토끼해(계묘년(癸卯年))’라는 어둡고 불안한 느낌의 이름만큼 국내외적으로 암울한 일들이 계속 된 한 해였습니다.

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영상기자가 뽑은 올해의 10대 뉴스’들을 보더라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작년에 이어 또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는 ‘오송지하도 참사’와 같은 여러 사고들과 자연재해, 역사의 퇴행을 걱정케 만든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영웅들에 대한 재평가작업과 이를 둘러싼 이념 논쟁, 우리의 현재와 미래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사태와 대한민국 출생율 0.7%대 진입, 그리고, 세계잼버리대회 부실운영과 조기폐영사태 등을 올 한 해는 우리 사회가 기쁨과 감동 보다는 고통과 위기, 분노를 견뎌내며 살아내야 했던 힘든 1년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 녹록치 않았던 2023년의 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카메라로 기록하고, 영상보도로 전달해온 전국 영상기자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영상에 담고 뉴스로 전달하며 현장의 이야기와 그 속의 사람들의 힘겨운 이야기들을 묵묵히 몸과 마음으로 받아내고 이겨내야 했던 모든 영상기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 보냅니다. ‘당신 정말 잘 참고, 잘 이겨냈어요!’

1895년 움직이는 영상을 담은 카메라가 세상에 등장한 날로부터 시작된 영상기자와 영상저널리즘은 ‘영상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재현하고, 영상기자는 뉴스의 현장 한가운데서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언론인으로서 사실로 확인한 것을 영상에 담아 전달한다.’는 대중과 사회의 믿음에 기반해 존재하고 그 역할과 위상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흥수처럼 삶의 일상으로 쏟아지는 시대, ‘영상기자’가 취재하고 보도하

는 한 컷, 한 컷의 영상이 가진 사회적 의미와 영향력,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진실의 전달자’, ‘역사의 기록자’로서 영상기자들이 좀 더 자신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할 것을 시청자와 시민들은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과 혼돈의 시대, 우리가 정립하고 발전시켜 온 ‘영상기자’와 ‘영상저널리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더욱 키워나가고, 시민과 사회가 바라는 영상기자와 영상저널리즘의 역할을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성실하게 고민하고, 용감하고 올바르게 실현해 나가느냐는 우리의 직업과 우리가 추구하는 영상저널리즘의 미래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 앞으로 본격화될 미디어산업의 정치, 경제적 논리를 앞세운 강제적인 변화 압력과 생생형AI와 같은 과학기술의 혁신이 미칠 저널리즘과 언론생태계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영상기자의 역할과 위상을 유지, 발전시키고, 우리의 생태계를 더욱 튼튼하고 건강하게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와

우리의 저널리즘이 존재하고 존속하게 만들어왔던, 영상기자의 ‘현장기자’로서의 정체성과 역할, 윤리를 더욱 튼튼히 하고, 시청자와 시민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영상저널리즘을 구현하는 것일 겁니다.

2024년 새해는 4월에 ‘제22대 총선’, 7월말에는 ‘파리하계올림픽’, 그리고, 11월에는 미국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전쟁’,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남북관계의 위기는 계속 진행형이고,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올해 보다 결코, 쉽지는 않은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2024년 갑진년(甲辰年)은 푸른 용의 해,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청룡이 가진 희망과 행운의 기운으로 올해의 암울하고 힘들었던 일들을 이겨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대가 좀 더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에도 더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협회, 11월 27일 ‘AI 저널리즘의 미래와 취재제작윤리’ 세미나 개최

-생성형 AI를 이용한 뉴스·방송 콘텐츠 제작 동향 소개
... 새로운 취재·제작윤리 확립 둘러싼 토론 이어져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나준영)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지난 11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과학종합대학원에서 ‘AI저널리즘의 미래와 취재제작윤리’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AI기술의 발전에 따라 취재·제작 현장에서 이를 이용한 보도와 프로그램제작이 기획되고, 실제로 일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AI 기술’이 가져올 저널리즘의 변화와 미래에 대해

예측해 보는 자리였다. 최은수 인텔리빅스 대표(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학교수), 김창룡·오태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등이 발제를 맡아 최근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례와 그에 따른 뉴스제작의 변화와 동향 등을 소개했다.

AI가 생성한 이미지, 기사, 영상의 사용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AI가 생성한 결과물들을 이용한 취재·보도에 있어

주의하거나 보완해야 할 문제는 없는지, AI 시대의 새로운 취재·제작윤리를 어떻게 확립해갈 것인지에 대한 현장 기자들의 토론도 이어졌다.

협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다른 문제들을 내년도 <영상보도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 적극 반영해 ‘AI 영상보도’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안경숙 기자 cat1006@naver.com



사람과 함께 일하는 두산의 협동로봇



다양한 분야에서 겪고 있는 노동력 문제에 답이 되는 기술
사람과 로봇의 시너지로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

두산은 지금, 사람을 대신하여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하던 로봇 기술을 넘어, 사람과 함께 일하며, 사람을 돕는 협동로봇 기술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 미래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두산에선 이미 현재의 비즈니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DOOSAN

공영방송 구조개선법은 거부하고 방통위원장 자리엔 선배 검사 지명

언론현업단체 “김홍일 지명 철회해야”…윤 대통령 일방통행에 여당·보수언론도 ‘부적절’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선배 검사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하자 언론계 안팎의 반발이 거세다. 방송·통신 정책을 관장하는 방통위 수장 자리에 김 위원장을 낙점한 것을 두고 여당과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새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지난 1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안 표결에 앞서 자진 사퇴한 지 5일 만이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는 지난 15일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1%가 김홍일의 지명”을 방송장악 의도로 평가하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고, 언론계 역시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선일

보는 지난 7일 사설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에서’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함께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이라며 “이미 현 정부 들어 과거엔 검사들이 가지 않던 자리에 검찰 출신이 임명돼 ‘검찰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실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라며 김 위원장의 부적격성을 제기했다.

동아일보도 8일 ‘방통위원장, 왜 대통령 선배 검사인지 설명이라도 해야’ 사설에서 “김 후보자는 미디어 분야에서 일해본 경력은 말할 것도 없고 미디어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사해본 경력조차도 없다”며 “대통령실은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했으나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내려고 해도 방통위 업무에 대한 정확한 감이 없으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논란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허은아 의원은 지난 12월 7일 BBS 라

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녁’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업무적 적합성에 대해서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며 “국민계 감동을 드리는 인선은 분명 아닌 게 확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또 “민주당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언론장악 프레임이고, 그걸 하지 말자고 방통위원장을 제대로 뽑아야 된다고 했는데 검사 출신이 되다 보면 이 프레임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라며 “청문회를 해야 하는 과방위원으로서 국민 설득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이다.

언론현업단체들은 “김홍일은 현직 권익위원장으로 공영방송 이사 불법 해임 과정에 전례 없는 권익위 조사권을 남용하고, 대통령 낙하산인 박민 KBS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노골적인 편향성과 이중성을 이미 드러냈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앞서 지난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언론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언론노조는 우선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이동관 전 위원장이 2인 체제로 운영하며 의결한 방통위 결정을 전면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 체제를 전면 개편하고 △YTIN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졸속 심사’ 논란을 부른 방통위의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언론 보도에 대한 국가 검열 철폐 △자유유제기구를 통한 언론사의 포털 독립 추진 등을 요구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방송3법’의 재입법을 추진하고 △국회 미디어특위 설치를 촉구했다.

연경숙 기자 cat1006@naver.com

〈키이우에서 온 편지〉

체르노빌의 기자들을 잊지 않은 한국에 감사



▲ 유리 볼다코프



▲ 아나스타샤 리지나 (유리볼다코프의 손녀)

천애하는 조직원위원회와 여러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일광주상 수상자인 유리 볼다코프, 할아버지 대신 수상소감을 전하게 된 아나스타샤 리지나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할아버지는 말씀하시기 힘든 병환을 앓고 계셔서, 제가 대신 할아버지의 수상소감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할아버지를 오일광주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는 수상 소식을 듣고 놀라셨습니다. 물론

기쁨이 섞인 놀라움이었습니니다. 체르노빌 참사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났고, 세상에는 많은 사건들이 발생해 체르노빌 참사에 대한 관심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개최되는 힌츠페터국제보도상은 여전히 체르노빌에 있던 사람들의 업적을 기억하고 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체르노빌 취재는 할아버지가 했던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체르노빌 취재는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취재 현장은 방사선 노출, 신체적 위험, 불면의 밤 등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의 취재, 시민의 알권리 보호가 원동력

용감했던 할아버지는 취재 시 발생할 개인적인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원동력은 모든 걸 잊는 그대로 보여주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매우 자랑스럽고, 불행히도 체르노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기에 할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기쁩니다. 할아버지는 건강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맑으셔서,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조직원위원회로부터 훌륭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할아버지를 수상자로 선정하고 기려 주셔서 감사드리고, 할아버지의 업적이 끼친 영향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3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오일광주상 수상자들은 볼로디미르 셰브첸코, 유리 볼다코프, 볼로디미르 타란첸코, 빅토르 크리프첸코, 네 명이다. 이중 유리 볼다코프만이 현재 생존해 있다. 그는 오랜 병환으로 직접 수상하지 못하고, 아나 스카비네치가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 부대사가 상을 대리 수상했다.

뉴스View

취재를 잊은 언론, 진실을 숨긴 언론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

#장면1. 11월 22일 우리 대통령이 영국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를 패스해 홀로 직진하는 장면이 생중계되었다. 현장 외신 기자들은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다 촬영했지?”라며 웅성거렸다. 영국 언론은 윤 대통령 내외가 온다고 보도했는데 왜 이날 김 여사가 동행하지 않았을까. 후속 보도가 필요했다. 명백한 외교 결례 아닌가.

#장면2. 11월 24일 김은혜 홍보수석은 프랑스로 파리에 “팀 코리아와 함께 1분 1초를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신의 대장정은 이 시각도 현재진행형”이라고 엑스포 브리핑을 했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실이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내 술을 마셨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실이라면 김 수석의 브리핑은 방통위와 방심위가 헌신을 다해 색출하려는 명백한 ‘가짜뉴스’ 아닌가.

#장면3. 11월 27일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자 언론은 일제히 함정취재를 지적했다. 한술 더 떠 해당 영상을 ‘인용’한 JTBC 보도를 방심위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로 이첩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 북한 문제 관여 발인의 위험성은 가뻐이 넘길 사안 이 아니다. 유독 영부인 관련 의혹 보도만 신속하게 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

이 세 장면의 중심엔 ‘취재 보도를 잊은 언론’, 더 정확히는 ‘진실을 숨긴 언론’이 있다. 권력이 숨기려는 사실을 찾아 보도하는 게 언론의 본령이다. 관치보도 일변의 엑스포 보도는 언론 참사라 할 정도로 심각했다. 언론은 “각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지지한다”며 승산 있음을 연일 부추겼다. 게다가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의 후속보도는 거의 없었다. 현장 취재 기자들은 왜 ‘29표’ 밖에 못 얻었는지, 도대체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취재하고 밝혀야 마땅하다. 끝까지 ‘119 대 29’의 ‘참패’를 ‘석패’라 보도하고 “유치는 실패했지만 외교 역량은 성장”했다며 진실과 거리가 먼 보도를 또다시 확대 재생산했다. ‘막판 뒤집기’ 신화에 매달렸던 우리 국민과 특히 부산 시민들이 겪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어찌 보상할 텐가.



▲ 1997년 당시 정부와 한국의 언론은 외환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이야기했지만, 1997년 12월 3일 우리정부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협상을 체결해야 했다.(1997.12.3MBC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요즘 언론의 정부 관련 취재보도행태, 1997년 IMF구제금융 사태와 흡사

요즘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한 보도 기조는 IMF 구제금융 당시와 흡사하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체결 직전 언론은 “위기 넘겼다” ‘위기 아닌 과도기’라며 낙관적 전망만 늘어놓았다. 당시 언론은 객관적 검증이 안 된 정부 입장과 발표를 그저 실어 나르기만 했고 취재 보도는 부실했다. 국가 부도를 맞은 날, MBC 이인용 앵커는 IMF 범정관리 소식을 전하며 결국 “국치일”이라 했다.

엑스포 홍보에 뿌려진 상찬의 땀가로 처리해야 할 청구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알아야 할 진실이 너무 많다. 사우디에서 사일 받을 정도로 외교 현장에서 활발했던 김 여사가 다우닝가에 왜 동행하지 않았는지, 파리에서 대통령실이 촌각을 다투는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내 술자리를 가졌다면 술값은 누가 냈는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다른 국가에 지불해야 할 29표의 약속 비용은 얼마인지 여간 궁금한 게 아니다. 취재 기자들은 진실을 알 것이고, 알아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방심위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를 비롯한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 정책이 보도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위축시킨 건지 짚아볼까만 하다.

진실보다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일방에 의한 정보 왜곡이 범람할 경우, 진실은 묻히고 허위 정보, 과장된 보도가 주류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 기성 언론의 이러한 ‘탈진실(post truth)’ 추구 현상은 충신을 앞둔 내년 더욱 우려된다. 2024년의 봄은 언론인들이 올바른 목적을 갖고 선량한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맞이하기 어렵다.

특히나 영상 저널리스트는 해석의 구체적 자료를 제공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전문 언론인이다. 용기 내봤자 손해 보고 피해만 보는 요즘 세태에 용기 내라 말 건네는 것조차 무책임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MBC 이기주 기자가 〈기자유감〉에서 밝힌 “권력이 기사를 발주하고 기자는 그 발주를 수용하는 형국”만큼은 거부할 용기가 있길 바란다. 언론사주에 의해 회사 이익만 추구하다 국익은 커녕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된다면 기자라는 직을 가졌다 한들 무슨 소용이라. 진실의 외장하드가 활짝 풀리는 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외부기고는 본 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출품대상 :** 2023년 1월 1일부터 ~ 12월 31일 까지

회원사를 통하여 방송된 보도영상물 또는 인터넷으로 송출된 작품

● **접수기간 :** 2023년 12월 27일(수) ~ 2024년 1월 15일(월) 오후 5시까지 업로드 완료 (출품기간 및 시간 엄수)

● **제출서류**

- 추천서 1부(소정양식)
- 공적설명서 1부(소정양식)
- 사진(명함판/얼굴사진) 1매
- 관련자료(방송보도물 및 온라인으로 송출된 작품 파일)

※ 소정 양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할 것
※ 공적설명서 내용을 자세히 기재할 것
※ 단체일 경우에는 부서나 팀명으로 신청
※ 소정양식은 한국영상기자협회 홈페이지 (http://www.tvnews.or.kr/page_vWfa93) 에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 ▶ 작품을 MP4 (MPEG-4 AVC/H.264) 파일로 변환하여 추천서, 공적서와 함께 한국영상기자협회 홈페이지 웹하드 한국영상기자상 게시판에 업로드
-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있는 ‘웹하드 사용하기’ 배너를 누를 시 웹하드 페이지로 이동함.
- ▶ 웹하드 공용 아이디 (아이디: news / 패스워드 : news6476)

● **심사**

1) 예선 심사 대상

- 당해년도 이달의 영상기자상에 출품하지 않은 작품
- 이달의 영상기자상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작품

2) 본선 심사 대상

- 예선 심사를 통과한 작품
- 당해년도 이달의 영상기자상 수상작

※ 수상작 중 공적설명서 등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제출

● **문의 :** 한국영상기자협회 사무처 (02) 3219 - 6476 ~ 7

● **공모시상부문 :**

- | | | |
|-----------------------|---------------------|---------------------|
| ① 뉴스특종단독부문 | ② 지역뉴스특종단독부문 | ③ 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 |
| ④ 지역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 | ⑤ 보도특집다큐부문 | ⑥ 멀티보도부문 |
| ⑦ '새로운시선'부문 | ⑧ 인권-노동보도부문 | ⑨ 국제-통일보도부문 |
| ⑩ 환경보도부문 | ⑪ 문화-스포츠보도부문 | ⑫ 특별상 |

※ 특별상은 각 부문별 이외에 영상기자로서 모범적이고 뛰어난 활동을 한 자.
또는 한국영상기자협회 비회원으로서 언론분야에서 모범적이고 뛰어난 활동을 한 자.
※ 대상은 수상작 중에서 선정. ※ 공모 작품의 성격이 복합적인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부문을 조정할 수 있다.

● **자격 :** 한국영상기자협회 정회원

제 37회

한국영상기자상
후보작을 공모합니다

제 113회 이달의 영상기자상 심사평

“총, 펜보다 날이 선 영상기자들의 시선, 현장의 충실한 영상 기록들이 남긴 수작들이 늘어”

영상기자상 심사위원장_ 서태경

이달의 영상기자상. 지역뉴스 특종 단독 보도 부문에 KBS 제주 강재운 기자의 “청정 제주, 공공 하수 슬러지 처리의 민낯 연속 보도”가 선정됐습니다.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았던 제주도의 ‘공공하수 슬러지’의 환경오염 실태를 끈질기게 추적한 기사입니다. 이 보도는 실제 바다 환경 보호에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수질과 토양 샘플 채취, 폐기물 처리업체를 촬영한 항공사진의 연도별 비교와 불법야적의 실상을 담은 영상들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확인 시켜 주었습니다. 청정 제주의 자연을 보호하고 유지하려는 지역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가, 지역방송, 지역언론의 중요성을 잘 보여 주었습니다.

보도 특집 다큐 부문은 KBS 청주의 김현기 기자가 출품한 “로드 투 테이블”을 수상작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물들, 그 식재료들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리 관계를 따져서 그 중요성을 영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수상작의 영상이 시청자의 보다 쉬운 이해와 공감을 끌어 낼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취재, 구성되었다는 심사위원들의 평이었습니다. 특히 해외 취재에서 선진국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까지도 세세히 잘 보여 주었습니다.

JTBC 황현우 기자의 “하마스 가장 먼저 침투한 가자지구 구 앞마루 가보니...”가 국제, 통일 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한 국 언론사 중 가장 먼저, 가장 깊숙하게 전쟁의 참사 현장을 취재한 점, 특히 아이언 돔의

하마스 로켓 격추 장면은 외국 방송사에서도 보기 힘든 결정적 장면을 잘 잡아냈다는 평입니다.

환경 보도 부문에서는 KCTV 제주방송의 김용민 기자의 “사라진 제주 돌”을 선정했습니다. “영상은 진실을 전달하는 최고의 장치입니다”라는 김용민 기자의 말처럼 이 작품은 점점 황폐화 되어가는 제주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되었던 해양 시설물과 사라지는 몽돌의 관계를 현장 수중 촬영을 포함 심층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상관관계를 최초로 규명하였습니다. 몽돌의 ‘백 웨이브’ 현상에 대한 수중 촬영, 부상을 들고 바닷가로 향하는 해녀들이 부상으로 바다 밑바닥을 헤치자 마치 거대한 먹물처럼 해녀들과 함께 피어오르는 검은 뱀은 상징적으로 제주 바다의 현재 모습인 듯 보였습니다. 이것은 지역 언론사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그 역할의 본보기가 됐다고 심사위원들이 평가했습니다.

뉴스 탐사 기획 보도 부문에 JTBC 김영목 기자가 출품한 “악인 취재기”는 영상, 편집, 조명, 음향 효과 등 영상기자의 노력과 고민이 깊이 담긴 매우 잘 만들어진 작품이고 재미있게 시청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O.T.T용 오리지널콘텐츠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이 반복적으로 사용 되고, 피해자의 자료사용에 대한 동의여부의 표시가 미비했다는 점이 아



쉬움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추후 기존의 TV뉴스시사물에 적용되는 취재제작가이드라인과는 다른, 좀 더 파격적인 O.T.T용 오리지널콘텐츠의 영상표현방식이 어느 선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협회와 심사위원들에게 남긴 작품이었습니다. 그러한 의견 때문에 수상작으로 선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애견샵의 ‘불법 강아지 번식장 취재’ 등 그 외 여러 작품들은 기자들이 현장에서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여 얻어낸 취재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여러 사건 사고 속에 올해도 역사 속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에서 영상으로 기록하고 취재해야 하는 숙명, 그 한복판에서 영상 기자의 눈은 총보다 펜보다 무섭고 날이 서야 합니다. 2023년을 보내며 애쓰신 영상기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강은 국가건강검진으로 시작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매년 30%의 질병 조기발견



성·연령별 맞춤형 검진
일반검진(본인부담금 없음)
암검진(일부 본인부담금(10%) 있음)



10년간 건강흐름을 한눈에
The 건강보험 앱(APP)



상담 및 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보건복지부

h well 국민건강보험



청정 제주, 하수 슬러지 처리의 문제

지역뉴스특종단독보도부문_ KBS제주_ 강재운



지난 8월 25일, 후배 강인희 기자로부터 급히 사전 취재요청이 들어왔다. ‘청이시돌목장’ 근처에서 토양과 수질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모습을 촬영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부서 결원이 많은 금요일이라 어쩔 수 없이 영상 데스크 업무를 잠시 멈추고 현장으로 향하면서 이번 이야기는 시작된다.

두 개의 옴 사이에서 위치한 문제의 폐기물처리업체는 제주의 유일한 민간 하수 슬러지(똥개기) 처리 업체로 서귀포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사용한 하수 찌꺼기를 건조해 다른 지역 화력발전소로 보내고 있으며 1년에 슬러지 처리량만 2만여 톤, 투입되는 세금만 40억 원이 된다.

업체 주변에 도착하자마자 심한 악취가 진동했다. 업체 굴뚝에서는 하얀 수증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취재팀은 가시범불을 해쳐 나가며 시료 채취를 시작했다. 모기와 풀벌레가 날아들었고 지면은 질퍽질퍽 늪지대를 걷는 느낌이었다. 폐기물처리업체로 점점 가까워질수록 토양에는 기름기가 가득했고 축산 분뇨 더미로 보이는 토양에서는 누런 물이 계속 흘러 나왔다. 그냥 보기에도 오염이 심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취재팀은 토양과 수질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조연을 받아 거리별로 여러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했고 동시에 영상 증거로서 채취 위치마다 다

다는 있는 그대로의 날것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가자 지구 인근 샤아르하네게브 34번 도로와 232번 도로 교차로. 피 묻은 봉대와 바닥에 널려있는 탄피. 머리 위로 아이언 돔이 하마스의 포탄을 요격하는 소리. 정신이 아찔하다 못해 혼미해지기까지 했다.

지금까지 예상 밖의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다.

최대한 방공호 옆에서 라이브와 리포트 제작을 하였다.

방공호 옆에 있으면 조금이나마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과 함께. 그렇게 전쟁의 서막에 들어온 나는 기록자 역할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다.

나라를 되찾겠다고 학살을 감행한 하마스 무장정파들은 최소한 무고한 죽음을 막기 위해 무해한 인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지. 보복 공격으로 가자 지구 내에 어린이들과 시민들을 무참히 살해한 이스라엘 또한 이런 위선 속에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더 이상의 죽음과 상처받는 이들이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에서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기도한다.

양한 각도에서 촬영해 나갔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증거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이 될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검사 의뢰 3주 후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는 매우 심각했다. 수질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 이전 원수보다 더 오염되었고 토양도 기준치보다 아연의 경우는 최대 4배 이상 높은 결과가 나왔다. 취재팀의 예상이 적중한 순간이었다. 하수 슬러지 처리 업체 주변이 왜 이렇게 오염이 되었을

까? 라는 의문을 갖고 연도별 위성사진을 확보하고 행정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분석을 시작했다. 결과는 업체 주변에 수년간 하수 슬러지를 아적했던 모습이 위성사진을 통해 뚜렷하게 드러났고 지난 10년 동안 환경오염법 위반으로 행정처분만 17차례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발 300미터 중산간에 위치한 업체 주변 수질과 토양의 심각한 오염으로 인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세계가 인정한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세계자연유산)을 차지한 보물섬 제주도의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면 그것은 곧 재앙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탐사K’ 연속보도 이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에 즉각 대책을 주문했고 제주도 역시 행정절차를 다시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들은 정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보도를 통해 하수 슬러지를 공공에서 처리하지 못해 민간업체에 처리를 맡기고 있는 제주도 하수 처리 정책의 현실을 알게 되었다. 겉으로는 청정 제주, 보물섬 제주, 유네스코 3관왕을 외치고 있었지만 속은 참혹했다. 앞으로는 지금의 문제점을 알리는 보도를 뛰어넘어 청정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공하수 슬러지 처리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시즌2’ 취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113회 이달의 영상기자상 수상소감

우리 식탁위에 올라오는 먹거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보도특집다큐부문 _ KBS청주총국_ 김현기



어릴 적 살던 동네는 5일장이 열릴 때 먼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하룻길에 그 시장을 지나와야 했기에 장날은 우회해서 집에 오곤 했을 정도. 상인의 익살스런 호객멘트와 가격을 흥정하는 손님들의 밀고 당기는 대화들, 농작물들의 채취가 이리저리 한데 섞인 그윽한 향. 내가 기억하는 시장의 풍경은 그렇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시장을 다녀온 기억이 없다. 로켓배송과 마켓컬리로 클릭 몇 번에 간편한 구매가 편해진 탓일 것이다. 재료의 신선함 보단 그 재료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하는지가 더욱 중요해졌다고나 할까. 시장을 통해 직접 이 재료를 수확한 농부에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듣는 모습과는 점점 대비될 수밖에 없는 구매 행태인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가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고 있었다. 시작은 이랬다.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의 재료들은 어디에서, 얼마나 긴 시간을 달려 우리 식탁위에 오게 된 것인가. 길고 긴 유통망을 줄여 신선한 재료들을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러한 물음표로 시작한 우리 다큐의 주제는 '짧은 공급망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여 신선한 먹거리를 사고 지구환경보호에 앞장서자'는 다소 계몽적인 메시지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농부와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시장과 매장이 많아진다면 유통비도 줄이고 가격도 저렴해지며 나아가 이동 경로가 줄어들기 때문에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즉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는 답론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로컬푸드' 다큐 <로드투테이블>의 제작을 시작했다.

촬영시작 전부터 이 다큐는 푸드다큐가 아님을 스스로 다짐했다. 유통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다큐이기 때문에 재료의 여정을 보여 줄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필요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차량의 이동상을 통해 농작물이 어디론가 계속 팔려나가는 과정들을 일일이 따라다니며 촬영해야 했다. 생전 처음가본 서울 가락시장 경매장의 모습은 갓 수확한 농작물보다도 더욱 신선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 그곳은 그들만의 전쟁을 치루고 있었다.

영국 런던, 프랑스 리옹, 일본 아와지섬에 가서 해외는 로컬푸드 유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촬영했다. 런던의 경우 먹거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최대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이 움직임에 자원봉사자들이 동참하고 있었다. 주말마다 열리는 파머스마켓은 농민과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며 짧은 유통망의 확실한 사례를 보여주었다. 리옹은 지역 레스토랑들이 로컬푸드를 식재료로 쓰면서 미식의 도시다운 면모를 보였고 아와지섬은 로컬푸드 운동에 기업도 동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봄의 시작부터 가을의 끝자락까지. 무럭무럭 자라나는 먹거리의 수확을 촬영할 수 있었고 농민들, 푸드전문가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 다양한 농가들과 장터를 다녔고 특하나 해외 3개국 촬영분량을 모두 녹아내려 했기 때문에 명료한 사례를 위주로 편집을 시작했다. 한 시간 반 분량의 가편집을 끝내고

점차 현재의 로컬푸드 상황을 먼저 비춰주고 원인을 찾고, 잘된 사례들을 보여준 뒤 나아가서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다루려는 스토리텔링으로 완성했다.

<로드투테이블>이 113회 이달의 영상기자상의 지역특집다큐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

되어 너무나 감사드린다. 올해초부터 로컬푸드 아이템을 기획하고 방향의 킷을 잡으신 한성원PD와 먼타국에서 함께 고생한 장용석 감독, 그리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주신 최승원 영상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이 다큐가 지역 농가와 소비자간의 거리를 조금이나마 좁힐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한번쯤은 우리 식탁위에 올라오는 먹거리가 어디에서 오는 것 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

영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평가하다-제주 몽돌·먹돌 해안 취재기

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_ KCTV제주방송_ 김용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사후 관리나 보존 대책은 몽돌과는 무관한 엉터리 대안뿐이었고, 몽돌 유실은 해안 시설물의 구조적 문제뿐 아니라 행정의 방치와 무관심이 더해진 예견된 인재였습니다.

3) 암흑 속에 갇혀버린 먹돌...생계까지 위협
과거 해녀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먹돌 해안. 해녀들과 함께 직접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해녀들은 삼으로 모래와 진흙을 파내고 그 아래 파묻혀 있던 먹돌을 취재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퇴적물로 인해 먹돌이 사라지자 해조류와 생물이 자취를 감추고, 해양 먹이 사슬이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해녀들의 생계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태를 수중촬영을 통해 생생하게 담고자 했습니다.

4) 엉터리 설계로 시작된 비극
해녀들은 먹돌이 사라진 이유를 방파제로 지목했습니다. 탐동 방파제 축조 공사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와 사후환경영향평가서를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가장 주목했던 건 방파제 설계가 제대로 됐는가였습니다. 보고서와 설계도 분석을 통해 사업 초기 해안선에서 430m 이격해 설치하려던 방파제가 분안 단계에서 80m로 당겨진 점과 추가로 해수 유통구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무려 350미터나 이격거리가 좁아진 점을 밝혀 내 방파제 부설 설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설계도에 나와 있지 않은 추가 유통구의 순폭을 직접 바다로 들어가 측량해 보니 기존 계획된 유통구 폭의 6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계 오류로 인해 퇴적물이 방파제 안으로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하고 촬영해 보도했습니다.

5) 유명무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탐동 방파제 축조 공사 이후 관리를 위해 진행하는 사후환경영향평가. 보고서상으로는 해양 환경에 큰 변화가 없다고 했지만, 직접 눈으로 본 현장은 달랐습니다. 지역 방송사 처음으로 보고서를 직접 비교 분석했습니다. 제출된 보고서와 각 조사 지점의 실제 해양 환경을 직접 촬영해 비교했고, 수질과 퇴적물 등 각종 분석표를 바탕으로 해양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해양 수질, 식생, 해안 토목공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보고서에 기재된 여러 개의 오류 값도 발견했습니다.

방파제 공사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주요 지점과 항목별로 조사하도록 한 사후환경영향평가가 실제로는 제대로 된 조사 없는 오류투성이었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정확한 경위를 듣기 위해 평가 업체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현재는 아예 사라져 입장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전 업체 관계자는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환경부 문의 결과 이런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6) 제주의 환경영향평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주 전국에서 유일하게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지자체에 평가 권한을 이양할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선도적 위치에 있는 제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학계와 환경단체,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제주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바뀌어야 할 구체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기획을 시작하며 신경 썼던 부분은 과거



촬영된 자료와 같은 곳을 명확하게 비교해 변화한 자연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영상을 보고 진실을 가까이 바라볼 수 있도록 수중 드론과 특수촬영을 통해 보고서와 다른 해양 실태를 보여줬고, 24M 프로브렌즈를 활용해 어려운 보고서의 내용을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촬영해 보도했습니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규 뉴스 보도 이후 6편의 기획뉴스를 '뉴스멘터리'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통합 제작해 방송했습니다.

그동안 환경단체나 마을 주민, 해녀들이 의혹만으로 제기했던 해양 시설물과 몽돌, 먹돌 유실과의 인과관계를 수개월간의 현장 수중 촬영과 자료 분석, 심층 취재를 통해 지역 언론사 처음으로 규명했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찾도록 대안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도 의미와 보람도 큼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심사를 해주신 심사위원님들과 취재를 같이한 KCTV제주방송 김경임 기자에게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출품대상

2023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원사를 통하여 방송된 보도영상물 또는 인터넷으로 송출된 작품

■ 제출기간

2024년 1월 1일(월) ~ 1월 16일(화)

오후 6시까지 (출품기간 및 시간 엄수)

■ 심사 : 2024년 1월 26일(금) 오후 2시

■ 심사 결과 발표 : 2023년 11월 21일(화) 오후 4시

■ 제출서류 및 방법 유의사항은 :

한국영상기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www.tvnews.or.kr)

■ 문의 : 협회 사무처 (02) 3219-6476~7



■ 공모시상부문(정회원예 한함)

- ▶뉴스특종단독보도부문 ▶지역뉴스특종단독보도부문 ▶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
- ▶지역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 ▶보도특집다큐부문 ▶멀티보도부문 ▶'새로운 시선' 부문
- ▶인권·노동보도부문 ▶국제·통일보도부문 ▶환경보도부문 ▶문화·스포츠보도부문

제 114회
이달의 영상기자상
작품 공모

〈2023힌츠페터국제보도상 수상자 국제교류행사 참여기〉

평범한 일상과 업무 속에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찾아가는 것의 중요성

JTBC_ 이현일



누군가 ‘왜 기자가 되었는가?’라며 고리타분할지도 모르는 질문을 한다면, 그래도 마음 한 편에 고이 모셔둔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라는 생각을 한다. 매일 반복되는, 어찌보면 지루한 출퇴근과 취재 속에서 ‘2023힌츠페터국제보도상’ 수상자들과 함께하는 국제교류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해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 다시 곱씹어보게 되었다

영상기자라면 누구나 두렵기도 하지만 전생취재 현장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보고 싶다.’는 갈망 때문이 아닐까?

이번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수상자들은 이를 일선에서 실현한 당사자들이기에 어떤 사람들일지 호기심과 기대를 안고 만나려 갔다. 하

지만, 호텔 로비에서 처음 마주한 수상 기자들의 모습은 여느 외국인 관광객과 다르지 않아 보였다. 거칠고 강인한 외모의 사람들이라고 나도 모르게 예상하고 갔기에 의외였다. 또, 함께 서울의 명소를 다니며 본 그들은 관광지에서 즐겁게 사진을 찍으며, 한국의 음식 맛보고 행복해하는 당연하게도 평범한 여행자들일 뿐이었다.

수상자들과 함께 서울투어를 진행하며, 한국의 일상을 보여주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 직접 교통카드를 사서 지하철을 탑승하였고,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땐 도보로 이동하였다.

그러던 와중 한 수상자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한국 사람들은 조용한 것 같다. 그게 맞나. 맞다면 왜 그런가?’였다.

별 질문이 아닌 것 같았지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뭐라고 설명해야할까?’ 생각했지만, 먼저, 나는 내가 한국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에 대해 평소 어떻게 보았으며,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민해봐야 했다. 수상자들이 일본

한국 사람들의 일상은 정성없이 바쁘고 무표정하게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또한, 핸드폰만 바라보며 주변과 단절되어 있는 모습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바빠서 그래 보이는 거 아니었을까요?’라며 적당히 돌려댔다.

수상자들은 일상 속에 존재하는 특별함을 찾아 포착하였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과 대비해 보니 나는 그동안 내 자신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문제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지 않고, 너무나 소극적으로 바라보며 살아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오버랩되어 창피한 생각이 들었다.

전쟁과 극한의 위험상황을 취재하고 경험했던 기자들을 만나, 그들이 가진 대단한 점을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힌츠페터국제보도상 교류행사에 참여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한 짧은 시간동안,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일상의 삶과 반복되는 취재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다르게 바라보고 살피는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내가 바랐던 ‘세상을 놀라게 할 대단한 보도’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었다.

〈2023힌츠페터국제보도상 통역 자원봉사 참여기〉

영상기자,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된 행복한 시간

중앙대 재학 김루비



언론 쪽으로 관심이 많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에 재학 중인 저에게 2023 힌츠페터국제보도상은 제 꿈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만든 기회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저에게 단순히 통역이라는 역할보다 더 크고 값진 경험을 안겨주었습니다. 처음 2023 힌츠페터국제보도상 통역 자원봉사자로서 뽑혔을 때 감사하면서 도 정말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나 대학에 오기 전까지 타국에서 자란 저에게 영어

로 대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막상 언론인들에게 정확하고 분위기에 맞게 통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학생인 저에게 기자님들은 바쁘고, 직설적이고, 항상 피곤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만의 편견이었고 어린 저의 무지함이었습니다. 영상기자협회 회원님들을 시작으로 수상자분들까지 다들 정말 멋진 분들이었습니다.

이번 자원봉사를 준비하고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수상자들과 함께하며, 저 자신도 한국사회에 대한 지식이 많이 풍부해지고 한국 문화와 예절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

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사람이지만, 한국이 낯설게 느껴졌던 저에게도 한국문화에 매료되어 한국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더 나아가, 2023 힌츠페터국제보도상에서 통역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에 많은 언론의 전문지식언어를 찾으면서 제가 몰랐던 꿈이 생겼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항상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휴학’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저에게 영상기자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제가 영상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외국 기자님들에게 통역을 해드리면서 쉬는 시간 때 자신의 커리어 경험을 생생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이 정말 멋져 보이고 제가 졸업해서 기자님들처럼 사회를 위

영상기자들이 뽑은 2023년 10대 뉴스



다시 살펴 보는 영상기자들이 뽑은 올해의 10대 뉴스

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본 정부는 올해 8월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오염수를 약 30~40년에 걸쳐 하루 최대 500톤 가량의 오염수를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위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접국가와 시민들에게 충분한 협의와 양해 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는 강도 높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오염수 방류 절차 및 시료 검증에 문제가 없다’는 IAEA의 안전성 검토 중간 보고서에 근거해 방류를 강행했다.

2. 청주 오송공평지하차도 참사 피해와 지자체 대처 논란

지난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사고현장 주변의 홍수 통제를 맡은 금강홍수통제소는 사고 4시간 전인 15일 새벽 4시10분에 미호강과 미호천 교趾점에 홍수경보를 발령하고 사고 2시간 전인 아침 6시31분 지자체에 교통 통제, 주민 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를 전달받은 지자체들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도로통제를 하지 않았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는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하지만, 참사의 원인을 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들과 경찰, 소방 등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시민들의 분노는 계속되고 있다.

3.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난 10월 7일 새벽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고 250명 이상의 인질을 끌고 가면서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됐다. 이에 이스라엘은 대규모 공습에 이어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 지구에 대대적 폭격을 가하는 등 즉각적인 보복에 나섰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하고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며 본격적인 지상전을 시작했다. 인질과 수감자를 맞교환하기 위한 ‘일시적 휴전’이 있었지만, 전투는 다시 시작되었고, 끝을 알 수 없는 전쟁과 무고한 생명들의 희생은 계속되고 있다.

해서 정의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정의로운 언론인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2023 힌츠페터국제보도상에서 통역으로서 제 일을 충실히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아픈 역사와 현재 우리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배울 수 있어서 제 자신이 대견했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외국기자님들은 전문적으로 통역을 하는 저에게 격려의 말을 멈추지 않았고 저를 정말 친동생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주눅이 들었던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신감이 생겨 통역이라는 역

4. 서씨호 교사 사망 사건과 전국교사 시위 지난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 A씨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1학년 담임을 맡으며 자신의 학급 학생이 다른 학생을 연필로 상처를 입힌 이른바 ‘연필 사건’으로 학부모 민원에 힘들어 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직 사회는 크게 분노했고, 악성 학부모 민원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면서 교사들은 교권 회복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의 사망 직후인 7월 22일부터 서울 광화문, 국회 앞에서 토요 집회를 열었고, 49재인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여 교권 회복을 촉구하며 단체로 연가·병가 투쟁에 나섰다.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서도 교권 회복과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 9월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5. 해체수군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논란과 박정호 해병 수사단장 항명사건

올 여름 경북 예천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를 수색하다 해병대의 무리한 수색작전으로 인해 해수군 상병이 하천에 휩쓸려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해병대 지휘부의 무리한 수색지시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군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이를 수사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박정호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해병대 수뇌부와 국방부 뒷선의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6.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부실운영과 조기 폐영 따른 국제망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파행 끝에 8월 11일 폐영했다. 그날 하나 없는 아영장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고 지저분한 화장실, 상한 음식 등 ‘최악의 잼버리’라는 오명에 걸맞게 연일 이슈가 계속됐다. 사전 준비부터 점검, 일정 관리, 사후 조치까지 순탄한 게 없었고, 대풍 카논이 올라와 날씨까지 도와주지 않았다. 영국, 미국, 싱가포르 대표단은 조기 퇴영했다. 대회가 끝난 뒤 부실한 행사 준비, 관련 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은 물론 잼버리 부지 선정과 예산 집행 과정, 수익계약 관련 유착 의혹도 제기됐지만 조직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할을 부담감 없이 재미있게 끝마쳤습니다. 일을 하면서 저는 전혀 일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니다. 오히려 내일 또 기자님들을 뵈 생각에 설레었고 열심히 영상을 찍었을 기자님들이 모든 일정에서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저에게는 2023 힌츠페터국제보도상에서 활약한 모든 분들이 마치 제 가족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2023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수상자들과 함께 한 통역자원봉사의 경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니다.

7. 홍범도 장군 및 독립유공자 흉상 육사 퇴출 논란

육군사관학교(육사)가 일제강점기 독립전쟁에 나섰던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독립군 양성기관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이회영 선생의 교정 앞 흉상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생도들이 학습하는 건물 중앙현관 앞에 설치된 독립군·광복군 영웅 흉상은 위치의 적절성, 국난 극복의 역사가 특정 시기에 국한되는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육사와 일부 정치인들의 흉상 이전 논리에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흔적 지우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광복회는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시도가 최근 일련의 독립운동 역사를 폄하하는 반헌법적 행태와 무관하지 않은 일로 보고 있으며, 개탄스럽고 매우 우려되는 ‘독립운동 흔적지우기’로 인식한다”고 반발했다.

8. 수원, 인천, 동탄 등 강동전세사기 피해 속출

지난해 12월 이른바 ‘빌라왕’ 사태를 시작으로 올해 전세사기가 수원, 인천, 동탄 등 전국을 휩쓸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정부와 여야는 지난 5월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 후 6개월마다 보완 입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이나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지난 5월 25일,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3차 발사에 성공했다. 2022년 2차 발사 성공으로 이미 자력으로 1톤급 실용 위성을 발사하는 능력을 입증한 7번째 국가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실용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첫 실전발사인 3차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뉴 스페이스(민간 우주 개발)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10. 함께 출산율 0.7명대 진입

0.7.지난 3분기까지 한국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준인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인구 절벽이 생각보다 빠르게 연속 최저치를 기록하며 우리 앞에 와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하는 속도가 흑사병이 창궐했던 중세 시대 유럽보다도 더 빠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놔다. 내년부터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지급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지급 ▲늘봄학교 모든 초등학교로 전면 확대 ▲산생아 출산가구(2세 이하) 주택구입·전세대출 특례 신설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저출산 정책도 새롭게 시행할 예정이지만, 이런 정책이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경숙 기자 cat1006@naver.com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인천 유치를 기원합니다.

2025 APEC
INCHEON

인천광역시

2023 힌츠페터국제보도상 특별세미나 지면중계

“언론인, 흔들림 없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전할 수 있어야”

11월 7일, MBC골든마우스홀에서 2023 힌츠페터국제보도상 특별세미나 열려… “세계가 직면한 문제 고민하고 연대하는 자리 되길



힌츠페터국제보도상조직위원회(위원장 나준영·원순석)는 시상식 하루 전인 지난 11월 7일 서울 상암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전쟁과 인간’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특별 세미나에는 아흐메드 아사르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올해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수상자, 주한독일대사관 공보관과 언론학자, 학생 등이 참석했다.

나준영 힌츠페터국제보도상 공동조직 위원장은 축하사에서 “영상기자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했을 때 현장에서 기록하고 알리고 역사로 남기는 사람, 이것은 어떤 탄압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누군가에 의해 계속되고 그럼으로써 세상에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런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서 오늘을 기록하고 전달하고 내일의 역사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또 “첫 걸음을 땀 땀 이 상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안에 속에 있었는데 올해 세 번째 발걸음을 떼어보니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명확해지는 것 같다”며 “앞으로 이 상이 수상자들이 전하는 이야기, 그 속에 담긴 진실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여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연대해 나가는 장이 되도록 발전해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안형준 MBC 사장은 축하사에서 “이 세상이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MBC가 이 시대의 진실의 주인공으로 사명감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흐메드 아사르 심사위원장은 “저널리즘은 고결한 직종이며,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와 퍼뜨리는 정보, 그리고 밝혀내는 진실은 우리의 세계를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언론인들은 정확성, 진실성, 흔들림 없이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로 세상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흐메드 심사위원장은 이어 “2023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수상자들의 용기 있는 보도에 감사드린다”며 “지금 이 시각에도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취재를 이어가는 언론인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특별 세미나에는 독일 대표로 주한독일대사관 다비드 비가 1등 서기관도 참석했다.

비가 서기관은 “고 위르겐 힌츠페터가 용기 있는 언론인으로서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 상황을 보도했고, 한국인 동료의 도움을 받아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자유를 위한 한국인들의 저항을 알렸다는 걸 한국에 와서 알게 됐다”며 “위르겐 힌츠페터의 이름을 따

힌츠페터국제보도상을 공동제정한 5.18 기념재단과 한국영상기자협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바흐무트 전투〉수상자들은 때때로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부당함을 조명해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심사위원회가 수상작을 잘 결정한 것 같다”며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2023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수상작을 감상하고 수상자들의 소감을 들은 뒤 본격적인 세미나가 시작됐다.

▲ ‘평화의 삼다리’ 무너지면서 전쟁 발발…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전쟁으로 권력 공고히 하려는 ‘악탈적 과정’ 드러나

‘전쟁과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지용 해군사관학교 교수는 전쟁 속에서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 훼손될 수 있는지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국제정치학에 민주평화론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민주주의, 국제기구, 경제적 상호의존이라는 ‘평화의 삼다리’가 잘 유지될 평화가 유지된다는 이론”이라며 “평화의 삼다리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 학자들이 조만간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했는데, 그런 우려 가운데 터진 것이 바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밝혔다. △국가간 전쟁과 내전은 줄었지만 한 국가에서 시작된 내전에 주변 국가들이 참전하거나 무기 지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전하는 국제화된 내전이 증가했고 △민주주의의 국가는 늘고 있는데 언론자유를 통제하는 형식적 민주주의, 즉 권위주의 국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찰스 틸리의 ‘전쟁국가이론’으로 설명했다. 틸리는 국가를 ‘전쟁 승리를 위해 탄생한, 주어진 영토 내에서 폭력의 합법적 사용을 독점한 조직’으로 보고 전쟁과 국가의 탄생, 유지 및 강화가 조직폭력배의 관점에서 선순환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국가 엘리트가 전쟁을 위해 안팎으로 적을 만들고(전쟁, 국가 건설) 그 적의 위협을 과장하면서 시민으로부터 세금과 병역을 갈취하는 대신(추출) 그들에게 안보라는 공

공재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변하면서(보호) 일사분란한 전시동원체제로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특히 영토적 경계가 불명확하고 통치의 정당성이 부족한 신생(독립) 국가”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도 건국 과정에서 이승만과 김일성이 남과 북에서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쳤고, “1991년 소련의 공식 해체로 탄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이러한 과정이 부분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푸틴이 전쟁을 수행할 때마다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폭락한 반면 푸틴의 국정 지지율은 치솟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러시아, 반민주주의 지도자 위해 허위 조작정보 유포
…바그너 용병 인권유린으로 아프리카 국민 반발 초래할 수도

두 번째 발제는 김동석 국립외교원 교수가 ‘아프리카에서의 러시아의 세력 확장’과 민주적 사회발전의 위기를 주제로 맡았다.

김 교수는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이 아프리카에서 패권 경쟁을 할 때부터 러시아가 아프리카에 원조를 많이 했다”며 최근 러시아가 아프리카에 ‘재진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2000년 이후 외교 정책을 공세적으로 펼치기 시작했고 △서구의 경제 제재로 타격을 입은 러시아가 새로운 경제 교류 대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러시아가 △아프리카의 절반이 넘는 28개국과 군사협력 조약을 체결하는 등 군사 협력을 기본으로 △군사 협력과 연계한 자원·에너지 협력 △언론과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진리 여론 조작 등 ‘소프트 파워’ 전략을 활용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아프리카 재진출에 대해 김 교수는 “다수의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호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반민주주의 정부 지도자 지원, 바그너 용병의 인권 유린 등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국민들의 반발과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러시아의 아프리카 진



출 견제를 위해 서구 국가들이 대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 여전히 영어권 외신 의존도 높은 한국 언론의 국제 보도
…“달라진 전쟁 맥락, 이용자 환경과 욕망 알고 보도해야”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한국 언론의 가짜지구 전쟁 보도를 분석했다. 채 교수는 우선 한국 언론의 국제보도에 대해 △우리나라와 지정학적 관계가 깊은 국가, 특히 영어권 외신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외신을 인용 보도한 기사가 맥락이 파악이 안 되거나 우리 시선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등 의식을 부적절하게 인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국제뉴스·분쟁 전문기자가 부족하다 보니 배경지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보도를 하거나 과장적인 기사, 오해를 부를 만한 기사를 쓰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채 교수는 가짜지구 전쟁과 관련해 언론이 지정학적 맥락을 포함해 복합전과 하이브리드전으로 달라진 전쟁의 양상, 전쟁의 맥락, 미디어 이용자 맥락 등 여러 가지 맥락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상태에서 관련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러시아가 서방에 대해 미디어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가정 아래 샤프트 파워(회유와 협박은 물론 교묘한 여론 조작 등을 통해 행사하는 영향력)를 강조하고 있다”며 RT 등 선전매체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샤프트 파워가 전 세계에 확장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채 교수는 9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보도된 방송 보도 3,157건을 분석한 결과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결과”였다고 말했다. 3,157건의 기사를 빅데이터 분석한 결

과 가장 많이 보도된 주제는 가짜지구 등 주민 상황으로 14.9%를 차지했고, 인질 및 피해 사상자 보도(14%)와 이스라엘 및 서방 반등 및 대응 보도(13.8%)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채 교수는 “이같은 보도는 우리나라가 서구 언론의 시각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며 “특히 한국 언론의 특징 가운데 전쟁 보도가 나오면 즉각 경제 반응을 보도하는데, 정치사회적 맥락이 빠진 상태에서 경제 중심의 보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이어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핵심에 미국과 이스라엘, UN이 한국 언론의 주요 주제로 등장하고 있어 기사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용 매체 역시 로이터, CNN, AFP, PA 등 서방 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지상파 3사 가운데 보도 건수가 가장 적었던 SBS가 선정적인 제목으로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높게 나오는 좋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채 교수는 “한국 방송뉴스에서 가짜지구 전쟁에 대한 보도 경향을 살펴봤는데, 달라진 지정학적 맥락과 전쟁 맥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기존 한국 언론의 전쟁 보도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났다”며 “가짜지구 보도가 미디어의 지정학적 관계로 만들어진 확증편향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기자들이 알아야 한다.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도한다고 하지만 달라진 전쟁의 맥락, 이용자의 환경과 욕망을 알지 못하면 객관적 보도가 힘든 시대다. 욕구를 알지 못하고 주어진 미디어 리소스를 활용하다 보면 확증편향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안경숙 기자 cat1006@naver.com

사진으로 보는
2023힌츠페터국제보도상
시상식

1

2

3

4

5

6

7

8

1 <사진으로 보는 2023힌츠페터국제보도상 시상식>
: 2023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시상식이 11월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2 <바흐무트전투>를 취재해 뉴스부문 수상자인 미국바이스뉴스의 영상기자 아담 데지데리오, 우크라이나의 프리랜서 영상기자 줄리아 코체 토바가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장과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으로 부터 트로피와 상장을 받고 있다.

3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내 러시아의 소프트파워>를 취재해 특집부문 수상자가 된 프랑스의 캐롤 발라드, 클레망 디 로마 영상기자

4 아흐메드 아사르 심사위원장으로 부터 대상인 <기로에선 세계상>을 받는 알렉산드라 오디노바, 바실리 콜로틸로프

5 시상식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3힌츠페터국제보도상 수상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수상자들을 축하하는 격려간담회를 가졌다.

6 11월 9일, 광주에 간 수상자들은 국립5.18민주묘역을 방문해 분향했다.

7 2023힌츠페터국제보도상 수상자들과 행사조직위원들은 11월 9일 광주5.18민주묘역에 있는 힌츠페터기념공간을 찾아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8 광주MBC의 시사토론프로그램 <시사용광로>에 수상자와 조직위원들이 참여해 힌츠페터국제보도상의 의미를 알리고, 이번 수상작들과 수상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과 독일의 정치 지도자의 역사인식

한국영상기자협회 고문_한원상



▲ 1970년 12월 7일 나치에 의해 희생된 폴란드 바르샤바 게토 유대인 추념비에서 쏟아지는 폭우를 맞아가며 눈물을 보이며 참회의 무릎을 꿇은 당시 빌리브란 서독 총리. (사진1, 출처 : 나무위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추축국(樞軸國)으로서 동맹을 맺고 함께 인도에 대한 죄를 범하고 전쟁에 패한 독일과 일본은 매우 닳은 점이 있으나 전후 처리에서는 역력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정치 지도자들의 역사인식의 격차이다.

‘일본 군국주의 전범자와 정치인의 역사인식’을 연재하면서 일제강점기 때, 아소타로(麻生太郎) 일본 자민당 부총재의 증조부 아소 타카치(麻生太吉)와 부친인 아소 타가키치(麻生太賀吉)가 조선인에게 다대한 피해와 고통을 준 사실을 밝혔다(본보 144호, 145호 참조). 아소 가계를 이어온 아소 씨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과거에 대한 반성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 오히려 망언을 함으로써 이웃 국가들에게 불신감을 초래했다.

일본 국내에서는 이웃 국가와

의 관계회복을 위해 교착상태에 빠진 아시아 외교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역사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같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추축국(樞軸國)이었던 독일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웃 국가들과 우호 관계 재구축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 왔을까. 일본과 독일의 정치 지도자들의 역사인식에 대해서 알아보자.

독일 정치지도자의 역사 인식

1970년 12월 7일 폴란드를 방문한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의 게토에 갇혀 희생된 유대인 위령비를 방문하여 그 비석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치 독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했다

(사진1). 브란트 총리는 그 장소에서 “과거를 잊은 자는 영혼을 잃는다”라고 참회하여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다.

브란트 총리의 행동은 유럽 각국을 비롯한 세계 나라들에게 독일이 진정한 마음을로부터 참회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고, 의심의 눈으로 독일을 주시하던 주변국은 비로소 독일을 향해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한 독일의 정치가는 브란트 총리만은 아니다. 호르스트 쾰러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방문해 국회에서 나치 독일이 유대인에게 범한 죄를 반성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다. 동시에 유대인 학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강조한 후 “홀로코스트(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독일이 저지른 유대인 대학살) 희생자의 얼굴과 생존자의 기억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했다.

쾰러 대통령은 역사 교육에 관심을 보였다. 자국민을 향해 “우리 교사와 부모, 그리고 언론인은 제대로 나치 범죄자를 가르쳤는지, 그리고 젊은 세대에 대해서는 제대로 역사를 가르쳤는지, 스스로에게 물어 보라”고 촉구했다.

한편, 쾰러 대통령은 “독일은 외국인에 대한 적대 감정과 반유대주의가 사라지고 있지 않다”며 “단호하게 대처하자”고 외쳤다. 독일에서 대두되고 있는 극우주의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 발언에 대해 독일의 여당과 야당은 지지를 보였다.

2004년 6월 6일, 슈뢰더 총리는 독일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2차 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참전 희생자 묘지에 헌화했다. 슈뢰더는 독-프 양국 기념식에서 지난 과거에 대한 독일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했다.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은 슈뢰더 총리에게 큰 경의를 표했고 프랑스, 영국의 주요 인물들은 2차 대전 유럽의 적대국들이 명실상부한 화해의 길에 접어들었다며 슈뢰더 총리의 태도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08년 3월 18일 이스라엘 의회(크네셋)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에 대해 용서를 빌었다. 독일 지도자가 이스라엘 의회에서 이 같은 사과 연설을 한 것은 2000년 요하네스 라우 전 대통령과 2005년 호르스트 쾰러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그러나 실질적인 독일 정부 수반인 총리나 이스라엘 의회 연단에서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이스라엘 건국 60주년을 기념해 현지를 방문한 메르켈 총리는 “홀로코스트는 수치스러운 기억”이라며 이스라엘 국민에게 머리를 숙였다.

독일의 정치 지도자들은 나치 희생자에게 용서를 구한 것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도 만들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는 브란덴부르크 문 가까이에 세워진 유대인 희생자의 이름이 세워져

있는 추모탑이 있는 장소는 물론, 나치 희생자와 관계되는 주요 기념 장소에서 극우주의자에 의한 데모 행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2005년 3월 11일 독일의 여당과 야당은 논의를 거쳐 나치정권과 나치의 폭력에 의한 희생자 추모 장소에서 데모나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회법 개정안이 합의에 이르렀다.

형법에 있는 국민선동에 관한 조항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극우주의자가 나치정권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고 나치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태를 발생시킨 경우 최고 3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개정 법안이 4월 15일 독일 의회에서 가결된 후, 베를린 홀로코스트 희생자의 추모탑에서 극우주의자들은 데모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같은 종류의 장소도 데모 금지 지역으로 정해졌다. 그 결과 독일의 극우파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60년에 즈음하여 2005년 5월 8일 같은 탑 앞에서 예전부터 대규모 데모를 펼칠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독일은 확실히 A급 전범을 군신(軍神)으로 제사 지내는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와는 정반대이다. 같은 전쟁의 가해국인 독일과 일본의 역사인식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지는 않고 레거시에 익숙해진 기자들에게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후배들을 향해서도 “기사만 쓰는 기자는 앞서가지 못한다”며 “경험한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거나 유튜브 방송을 하는 등 지금 세상이 요구하는 얘기를 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벽을 깨는 도전을 하고 기자들도 다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기사, 영상, 번역 등 다양하게 생성 AI 활용하면서 윤리 강령은 없어”

‘AI 저널리즘, 가짜뉴스, 윤리와 법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창룡 교수는 국내 주요 언론사의 생성형 AI 활용 실태를 살펴봤다.

김 교수는 따르면 우선 방송업계에서는 AI 아나운서, AI 기자, 대통령 후보 관련 보도 등 방송 콘텐츠 제작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또, 게시판 자동 응답이나 개인 맞춤형 콘텐츠 추천 시스템 등 시청자층 맞춤형 방송 편성에도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기상 특보나 속보, 사진 추천 등 방송 서비스 강화 측면에서도 AI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언론사들은 뉴스 기사 뿐만 아니라 영상, 번역 등에 다양하게 AI를 활용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1~2년 전부터 생성 AI를 활용하고 있다.

김 교수는 “AP통신사는 지난 8월 윤리 강령에 AI 활용 관련한 내용을 추가했는데, 우리나라는 AI 활용 관련 윤리 강령이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실정”이라며 “국내 방송사가 AI를 이렇게 많이 활용하면서 어떤 윤리강령도 만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부, 기업, 언론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생성 AI 협의회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하루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표하고 강령을 지킬 것을 사회와 약속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체되지 않으려면 AI 사용할 수 있는 기자 돼야”

오태연 교수는 ‘생성 AI의 현황과 실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오 교수는 “기존의 AI는 인풋을 넣었을 때 예측 가능한 아웃풋을 내놓는 형태인 판별 AI였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창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아웃풋을 내놓게 된 것이 생성 AI”라며 “데이터를 처리할 때 로데이터를 넣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내놓으면서도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주는 생성형 모델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어떤 기술의 발전이 특이점을 만나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시대를 바꾸게 되는데, 지금 특이점이 왔다”며 “기술적으로 인간과 인공지능과의 예측력, 판단력에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최근 게임 회사의 남용 캐릭터 논란을 들어 기업이 사람보다는 AI와 일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웹소설의 일러스트 제작을 위해 전문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닌 생성형 AI가 웹소설 표지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특히 미디어 분야에서는 생성형 AI 기술들이 인간을 많이 대체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교수는 마지막으로 “기자들에게 AI가 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일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가 될 수도 있지만, AI 시대에 일자리를 대체하는 건 AI가 아니라 AI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며 “ 기자들이 AI에 대체되지 않으려면 AI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갖춘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이승용 MBC 선임기자실장은 “신문과 방송이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신문에게는 또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생성 AI 분야에 투자 여력이 없는 언



▲ 2013년 12월 26일 당시 아베 총리는 주변국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했다. (사진2, MBC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일본 정치 지도자의 역사 인식

아베신조(安倍晋三, 제90·96·97·98대 총리) 당시 일본 내각 총리가 과거 태평양 전쟁을 주도한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했다(사진2).

2005년 12월 23일, 아소 씨가 외상으로 재임하고 있을 당시 중 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40차레에서 50차레 정도 야스쿠니에 참배했다. 처음 간 것은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때다”며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외조부)의 손을 잡고 갔다”고 말했다. 요시다 시게루는 일본의 45대 내각 총리를 역임했다.

독일과 일본은 같은 패전 국가 이면서도 양국의 정치 지도자의 자세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2013년 12월 26일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제90·96·97·98대 총리) 당시 일본 내각 총리가 과거 태평양 전쟁을 주도한 A급 전범들이 합사 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했다(사진2). 이후에도 계속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

며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야스쿠니 참배는 제2차 세계대전 전범을 인정하고 옹호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이다. 아베는 일본 최대 극우 단체인 일본회의의 회원이기도 하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제87·88·89대 총리) 당시 일본 내각 총리는 2005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여 주변 피해국으로부터 반발을 일으켰다. 고이즈미는 같은 해 8월 15일에 발표한 전후 50년 총리 담화에서 “우리나라는 한때 식민지배와 침략에 의해서 많은 나라를, 우선 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대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며 “역사의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의 마음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나 아시아 피해국은 진심이 담긴 사과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냉혹한 눈으로 일본을 바라보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지도자들이 진심으로 과거를 반성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인식 문제가 있어서는 아직도 일본과 아시아 피해국과의 사이에 여전히 거리가 있다.

론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I가 학습을 위해 가져가는 데이터의 원천 소스는 대부분 기자들이 생산한 기사인데, 그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기자들이 AI를 바로 쓰는 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선거 기간에 힘들게 현장을 다 쫓아다니지 않고 AI를 학습시켜 내보내는 것도 허용해야 하는지, 허용한다면 영상기자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협회, 학계 등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 협회, AI 시대 저널리즘 고민 담아내년 가이드라인 개정

나준영 영상기자협회장은 “챗 GPT 등장과 함께 저널리즘 문제에 맞닥뜨린 지금 기자 활동의 확대·발전이 아니라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협회의 ‘이달의 영상기자’ 심사 과정에서 AI를 통해 만든 이미지나 그래픽, 사진 보도가 현실을 왜곡한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왜곡된 인식과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나 회장은 이어 “인간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기자가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2019년 제정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내년에도 개정할 예정인데, 개정 방향은 기술 발전 시대, AI 시대에 저널리즘과 기자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 회장은 “2000년대 초반 온라인 저널리즘이 등장할 때 관련 법규와 저널리즘 관련 취재 제작 윤리가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I저널리즘세미나 지면중계>

AI저널리즘시대, 해답은 뉴스콘텐츠의 ‘퀄리티’

학자, 현장기자들 한목소리 “정부·기업·언론으로 AI협의체 구성해 윤리 강령 제정해야

최근 들어 AI를 활용한 방송영상제작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커져감에 따라, 지난 11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과학종합대학원에서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나준영)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한국전파진흥협회가 공동주최한 ‘AI저널리즘의 미래와 취재제작윤리’세미나의 내용들을 정리해 소개한다. 이날 세미나는 AI 기술이 가져올 저널리즘의 변화를 예측해 보고, 미디어업계가 취재·보도·제작 영역에서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자리였다. 최은수 인텔리빅스 대표(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학교수), 김창룡·오태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등이 발제를 맡았다.

편집자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미디어 기업과 잇달아 뉴스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오픈AI는 지난 13일(현지 시각) 다국적 미디어그룹인 약셀 스프링어와 계약을 체결했다. 챗GPT 학습과 챗봇 답변에 약셀 스프링어 계열 미디어의 뉴스 기사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이다. 오픈AI는 지난 7월 이미 글로벌 통신사인 AP통신사, 아메리칸 저널리즘 프로젝트와도 뉴스 콘텐츠 사용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AI이니셔티브팀을 꾸리고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출신인 잭 스위드를 영입했다. 스위드는 어떤 경우에 AI를 활용해 기사 제작을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AI 활용 사실을 공개할 것인지 등 NYT의 AI 사용 원칙을 만드는 임무를 맡았다.

챗GPT 등장으로 세계 미디어업계가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정과 저작권 협상 등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AI 저널리즘의 미래와 취재제작윤리’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AI 활용에 대한 윤리 강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시가 1초 만에 기사 만들어내는 시대…언론 살아남으려면 ‘퀄리티 저널리즘’이 답”

‘AI 기자 시대, 미디어의 미래는?’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최은수 인텔리빅스 대표는 현재 언론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를 먼저 짚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를 통해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고 생성형 AI(챗 GPT)가 1초 만에 기사를 만들어낸다. 보도자료를 기초 간담회, 발생 사건, 토크쇼나 컨퍼런스도 AI 기자가 단박에 요약, 정리, 번역해 낸다.

최 대표는 “AI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의 뉴테크놀로지가 몰려오고 있지만, 미디어업계의 실질적 변화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 언론이 아닌 유튜브 채널 삼프로 TV가 글자의 방송사 뉴스 구독자보다 훨씬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는 등 전통 미디어를 이기는 신형 미디어 권력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특히 유료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인 ‘서브스택’의 도약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의 취재 현장에 언론사 기자보다 크리에이터가 더 많은 현상, 과거 언론의 취재 관행과 문화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

는 MZ 기자들도 지금 우리 언론에 두드러지는 변화이다.

최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디어업계가 △뉴스 플랫폼을 모바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재편하고 △달라진 뉴스 고객의 패턴을 먼저 이해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추고 언론사보다 더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비언론 크리에이터와 경쟁하기 위해 깊이있는 뉴스 제작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망해 가던 뉴욕타임즈는 2011년 기자가 아닌 웹 디자이너와 개발자, 데이터과학자, 비디오그래프 등 디지털 기술 인력으로 과거와 전혀 다른 온라인에 특화된 디지털 콘텐츠로 차별화에 성공했다.”며 “특히 AI 퍼스펙티브를 도입해 혐오, 악성댓글을 걸러내 고품격 콘텐츠 지향했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는 전략은 퀄리티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것”이라는 NYT의 메시지를 강조하며 “대한민국 언론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MBN 보도국장 출신이기도 한 최 대표는 “제일 큰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할 곳은 언론사인데, 과거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다.”며 “세상은 새로운 움직임을 요구하는데, 현재 기자들의 전문성을 활용

현장에서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발표 취재기

KBS부산_ 장준영

‘유치 성공하면 출장 다녀와서 쉬지도 못하겠네?’ 출장을 준비하는 나에게 모두가 건네는 염원(?)일지 걱정일지 모르는 관심 속에 파리 출장길에 올랐다.

부산은 오랜 시간 세계박람회 유치를 준비해왔다. 그리고 2023년 11월 28일은 ‘D-day’, 파리에서 열리는 BIE(Th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국제박람회기구)총회에서 2030 세계박람회 개최국이 선정되는 날이었다. 나의 취재기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영상기자 개인에게 어떤 의미와 계기가 되었는지 이야기하고 싶다.

부산총국에서의 첫 MNG Live
범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이슈는 지역에서 전담하여 다루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파리 출장은 이야기가 달랐다. ‘부산’의 중심 이슈였으며, 오랜 시간 다뤄왔던 주제였기에 우리가 키클 잡았다. 게다가, 해외에서 처음 시도하는 MNG Live. 보고 들은 정보는 많지만 직접 해보지 않은 자는 모든 것이 두렵다. 예산이 넉넉하다면 업체를 통해 현지 기기와 USIM을 빌리는 안정적인 방법도 있었으나, 조직의 지속 가능한 활용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두 달 전부터 준비하고 알아봤지만 우여곡절이 많았다. 늦은 시간에 공항에 도착하는 바람에 USIM 샐이 단했다든지, 특정 통신사 외 다른 통신사의 USIM을 구하기 힘들어 2만 보가 넘는 행군을 했다든지, 울며 겨자 먹기로 샀던 USIM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밤

잠을 설쳐가며 골머리를 앓았다든지. 어찌어찌 첫 LIVE에 참여하게 되었고, 인터뷰로 들리는 주조 감독님들의 목소리가 인상 깊었다. “해외에서 하는 거 맞아? 소스가 너무 깨끗한데?” 성공적인 참여였다는 반증이라 생각한다. 처음 겪는 어려움은 성장의 자양분이라 생각하는 좋은 계기였다.

타국에서 느끼는 진심
이제 MNG Live에 대한 변수는 제어할 수 있다. 자신감이 생겼다.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와 예펄탑, 총회장, 시민단체응원전을 오가며 정신없이 뛰어다녔고, 촬영 보조 없이 양쪽 어깨로 짚어진 무게가 당시는 그리 무겁지 않았다. 긴장감 때문이었을까? 때시간 한국에서 요청하는 Live를 잘 끝내고도, 5분도 채 앉아있기 힘든 발생을 커버하고도 긴장감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렇게 개최국 발표 시간이 다가왔고, 이제 국제행사의 공식발표인지 헛갈리는 어수선한 현장을 뒤로하니 사우디 관계자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늘 그렇듯 기뻐하는 장면을 담고 있었지만, 손이 떨리고 쿡쿡거리는 심장을 주체할 수 없었다. 5분 남짓 환호하던 이들이 잠잠해지고 나서야 긴장감이 풀리고, 씩씩하고 아쉬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어찌면 나도 꽤나 오늘의 발표에 진심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평평 울고 있는 시민응원단과 눈시울이 붉어진 부산시 관계자를 보며 그 감정이 더 명확해졌다. 우리는 모두 진심이었고, 타국에서 다 같이 응원했다. 부산에서 기자 생활을 하며 자주 접하는 기사는 ‘부산의 먹거리’이다. 세계박람회는 그런 걱정과 패배감을 씻어낼 하나의 신호탄 같은 것이



었다. 연쇄적으로 일어날 부산의 변화는 긍정적 모멘텀이기도 했다. 그런 순간이 눈앞에서 사라진다는 감정에 모두들 아득했을 것이다. 결과는 부정적이었지만 마음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었음에, 타국에서도 같은 염원을 하며 걸으려든 속으로든 응원할 수 있었음에 벅찬 날이 아니었을까?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 영상기자라면 한 번쯤은 생각했을 법한 감정이지 않을까? 복합적인 감정이지만 저 문장에 다 녹아있다. 처음 시도해보는 두려움이 해소되고 자신감을 얻었을 때, 결과는 미미하고 아쉬웠지만 모두 하나의 염원으로 소통하는 마음을 보았을 때 나는 그 현장에 있었다. 이번 파리 출장은 나에게 경험의 깊이를 선물해 준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같은 시간, 각자의 현장을 지키고 계셨던 모든 선·후배 동료에게 감사한다.

외신에 의존하지 않는 한국 시각의 전쟁 취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MBC_ 장영근



군인과 탱크가 점점 늘어날수록 비스 안은 고요해졌다.

참혹한 홀릿이었다. 깨진 유리창과 메케한 먼지가 우릴 먼저 반겼다. 잠겨있지 않은 집 안은 총알 자국으로 가득했다. 바닥엔 끈적한 핏자국이 군데군데 남겨있었다. 빈 방을 정리하는 이스라엘 관계자들은 저마다 방역복을 입고 핏자국을 닦고 있었다. 나와 현기택 선배, 그리고 취재기자는 그 사이를 누비며 정신없이 취재했다. 취재 제한 시간이 있는 탓이었다. 완성된 문장 하나를 다듬고 만들기보다 즉흥적으로 스탠드업을 이어갔다. 정신없는 순간의 연속이었다. 그렇지만 마냥 녹화 버튼을 누를 수 없었다. 구겨진 혹은 먼지에 덮인 가족 사진들 앞에서 이곳에 왜 왔는지를 다시금 생각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비난 홀릿 취재뿐만이 아니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출장은 매 순간 나를 흔들었다. 서안지구 분리 장벽 앞에서 중계 준비를 하다가도 도시 전체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안전이 우선이기에 부리나케 방공호를 찾았다. 방공호가 없어서 타고 온 차 한 쪽에 방탄모를 쥐고 웅크려 앉기도 했다. 텔아비브에선 ‘뽕’ 소리와 함께 아이언돔이 미사일을 격추한 순간을 겪었다. 취재 현장 근처에서 최루탄이 터져 눈앞이 따갑던 적도 있었다. 정말 사고가 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었다. 긴장 속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스스로에게 침착하라고 되새기는 것 뿐이었다. 이번 전쟁 지역 출장은 내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었다. 외신들과 같은 현장을 누빈 점, 가족 잃은 슬픔에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만나본 점 등은 이 경험이 나의 기자 생활에 큰 밑거름이 될 것 같았다. 그러나 사이렌과 포탄 굉음 앞에서 한없이 나아해지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얼마나 안전을 보장받고 이곳에 왔는지를 되새겨왔다. 무거운 납덩이만으론 나와 동료의 안전이 보장받긴 어려울 것 같았다.

결국 사전적, 제도적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2007년 샘물교회 피랍사건 이후 우리 언론은 전쟁, 분쟁 지역으로의 입국이 제한됐다. 그러다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전쟁까지 그 문턱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국내 언론이 앞으로 어떤 위험지역 취재를 맞닥뜨려야 하는 순간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방탄조끼와 방탄모도 중요하지만, 선배 기자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전에 어떤 절차를 밟고, 어디까지 취재가 가능한 지 교육이 뒷받침됐을 때 보다 안전한 취재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때면 나의 몸을 감싸는 납덩이도 조금은 가볍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다.

EEZ 중국 불법어선 단속 동행 취재기

KBS 광주_ 이우재



2023년 11월 29일 새벽 6시, 해경 부두에 정박한 3,000t급 대형 함정의 모습은 조금은 겁먹었던 나에게 든든한 위로를 주었다. 비로소 안심하며 생애 처음으로 EEZ(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경제수역)까지 해경 함정을 타고 취재를 출발했다. 목포에서 EEZ에 도착하기까지 쉬지 않고 약 7시간의 시간이 소요됐다. 안에서 내부 시설물도 파악하고, 취재기자와 어떤 방식으로 취재할지에 대해 고민했다. 가장 큰 고민은 불법 조업 어선의 유무였다. 불법 조업 어선이 발견될 때까지 단속을 하겠다는 해경의 의지는 대단했지만, 정해진 일정 동안 실제 발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결론은 모든 단속을 전부 취재하는 것. 이후 7시간이 지나 EEZ에 도착했다. 단 방송이 나왔다. ENG를 들고 갑판 위로 올라갔다. 바다 위로 꽤 많은 취재를 다녀왔지만 압도적인 풍경이었다. 온 사방을 둘러봐도 작은 섬이나 육지는 보이지 않고 끝없는 바다만 보였다. 무언가 의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공포가 다가왔다. 쉬지 않고 시작된 불법 조업 어선의 단속, 3,000t급의 대형 함정을 뒤로하고 10명이 탈 수 있는 단속

속정 위에 ENG와 몸을 실었다. 흔들림 없는 편안한 에이오 침대에서 흑한기 야전 침낭으로 바뀐 기분이었다. 파도의 높이는 내 키를 넘었고 우리는 가감 없이 그 파도를 느껴야만 했다. 장비에는 침 없이 물이 쏟아져 흠뻑 젖었다. 핸드헬드의 파인더 안쪽은 파도보다 더 거세게 흔들렸다. 중국 어선에 탑승하는 일은 담력 테스트였다. 단속정의 뱃머리를 어선 옆에 부딪히면 줄을 거는 것도 없이 순식간에 올라타야 했다. 흔들리는 단속정과 다른 높낮이의 어선,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밀바다, 빠지면 더 이상 취재가 불가능한 장비, 이 모든 것들이 내 발을 더 얼어붙게 했다. 그래도 어찌어찌 올라 본 배 위의 모습은 정말 더러웠고 좁았다. 배를 건조하는 스타일이 다른 건지 관리가 안 된 건지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어선과 중국의 어선은 많이 달랐다. 여기저기 어질러진 생선과 잡기들 사이로 다시 말고 싶지 않은 악취가 풍겨왔다. 좁은 어선 위에서 10명의 해경과 10명의 중국 선원들 사이에서 취재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앵글이 한정적이었고 내 몸 하나 가누기도 쉽지 않았다. 4번의 단속이 끝나고 저녁 10시, 함정 안의 4인 숙소의 침대에 노곤한 몸을 눕혔다. 드디어 오늘 하루가 끝났구나. 스르르 감기는 눈에 정신도 블랙아웃하려는 순간, 광하는 큰 소리가 났다. 뭐지? 암초에 부딪혔나? 아니었다. 파도가 함정의 옆면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거기에 더해 1분에 한번씩 내 몸이 붕 떠올랐다. 높은 파도를 넘는 배가



하늘로 날았다가 바다에 착지하는 느낌을 소리와 내 감각으로 느꼈다. 잠을 잘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웃기게도 멀미가 나를 잠 들 수 있게 해줬다. 시간마다 파도 소리에 깨고, 술에 취한 것 같은 정신으로 잠에서 깨는 이 느낌이 이번 취재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했다. 귀밑이든 코밑이든 어디에 붙이든 멀미약은 소용없었다. 그냥 술에 취한 것 같은 정신과 걸음걸이를 취재를 해야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버텨내야 했다. 취재가 끝나고 육지에 올랐을 때, 글로만 읽었던 육지 멀미를 체험했다. 다시는 풍랑주의보에 바다를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이었다. 이번 취재를 겪으며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다. 그중 하나는 ENG가 아닌 컴팩트한 장비를 챙기지 않았던 것이다. 내 육체를 너무 맹신했고, ENG의 조작성이 컴팩트함 보다 더 큰 효율을 줄 것이라 믿었던 생각이 더 많은 앵글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두 번은 경험하기 어려운 취재지만 만약 한 번 더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장비를 챙겨가면 좋을 것 같다. 혹시 이 글을 읽은 뒤 바다에 취재 나가는 동료분들이 계시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 바다에서의 취재는 안전보다 중요한 요소는 없다.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란다.

롯데칠성음료

청량한 이 순간,
칠성사이다로부터

치즈가 들어간 롯데칠성음료 8 | 2023년, 식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로 변모합니다

Chilsung Cider

NEW

현장에서

OVER THE TOP, OVER THE VIDEO JOURNALIST

WAVVE 탐사보도프로그램 '악인취재기'의 취재기

JTBC_ 김영묵



1분 30초, 그 나머지를 보자 : RT 50분 10부작

진흙밭을 구르더라도 좀 더 자유롭고 직관적인 취재를 하고 싶은 욕망, 영상기자라면 누구나 마음 한 켠에 품고 있을 것이다. OTT 플랫폼으로 방영되는 탐사프로그램 제작을 처음 제안 받았을 때 가슴이 뛰었다. '보도국 소속 영상기자 최초 OTT 제작 참여'라는 타이틀보다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든 건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방송이라는 틀 안에 갇혀 할 수 없었던 직관적인 취재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이였다. 악인취재기 1편 정유정 편은 확보된 영상이라고는 정유정 공판 출석 장면, 변호사 인터뷰, 사건현장 스케치가 전부였다. 어떻게 50분짜리 탐사프로그램 두 편을 만

들어야 할지 막막했다. 고심 끝에 내 가지 큰 즐거움을 정했다.

첫 번째, 정유정 가족, 특히 정유정의 아버지를 무조건 만나서 인터뷰한다.

두 번째, 살해 및 유기장면, 사건 동선 등 존재하지 않는 영상은 재연으로 제작한다.

세 번째, 인서트 영상을 다양한 장비와 구도로 최대한 많이 촬영한다.

네 번째, 기자와 전문가 인터뷰는 장비와 구도를 정형화 시켜 10부작 악인취재기만의 독창적이면서 통일성을 갖춘 영상을 구현한다.

한 달 보름동안 거처를 부산으로 옮기고 백사장에서 바를 찾는

심정으로 곳곳을 찾아 다녔다. 영상기자라면 누구나 잘할 수밖에 없는 그것, '뺨치기'의 무한 반복 끝에 정유정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고 인터뷰도 성공했다. 아버지를 인터뷰하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아버지 본인의 범죄 사실과 정유정의 유년시절, 가족 간의 사연)을 통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 가며 퍼즐을 맞추듯 영상을 구현해 갔다. 필요한 인서트 영상들은 차트를 업데이트하며 차곡차곡 데이터베이스를 채웠다. 드론, 고프로, 360카메라 등의 인서트 영상이 편 집단계에서 많이 활용됐다. 남은 퍼즐 한 조각 '재연'. 재연은 팩트를 기반으로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연출의 영역일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든 영상을 구현해 내야 하는 과정에서 비보도국 PD와 보도국 영상기자가 서로의 관점 차이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지점이 많이 있었다. 현장을 취재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과 정유정의 동선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지만 일정 부분은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등의 추측을 영상으로 구현해야 했다. 이런 제작방식이 자칫 보도윤리에 벗어나는 건 아닌지 걱정과 고민에 휩싸이곤 했다. 그럴 때마다 협회에서 배포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현장취재 시 촬영장비는 기본 ENG를 비롯해 드론, 고프로, 360카메라, 필요에 따라서는 휴대폰으로도 촬영을 했다. 스튜디오 인터뷰들과 재연촬영은 SONY FX3, CANON 5D MARK-4에 시네마렌즈를 주로 사용했다. 부수장비로는 짐벌, 솔더마운트+팔로우포커스, 틸트집을 유용하게 사용했다. 조명도 직접 운용했다.

세상은 넓고 악인은 많다

영상기자 입장에서 악인취재기의 백미는 브라질 현장취재였다. 악인취재기 4, 5편 '돌나라 오아시스' 편은 영상기자가 PD 역할까지 병행했다. 막중한 임무를 갖고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브라질로 도주한 교주를 찾아 지구 한 바퀴를 돌았다. 돌나라 오아시스라는 사이비 종교 교주 박명호가 숨어들어간 곳은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고속도로를 12시간 달리고 비포장도로를 4시간 더 달려야 다다를 수 있었다. 돌나라 신도들은 계속 우리 취재진을 위협했다. 몸싸움과 욕설은 예상일이고 손에 잡히는 주변 물건들을 이용해 신변의 위협을 가하며 취재를 방해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두터운 철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지만 드론을 이용해 박명호 교주가 숨어든 내부 시

설과 광활한 농장을 촬영할 수 있었다. 지난해 4월 돌나라에서 일어난 어린이 5명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브라질 현지 경찰, 검찰, 법원 관계자들을 만났고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착취, 아동문제, 성범죄 등의 실상이 제대로 수사되고 있는지 취재했다.

주 브라질 한국 대사관과 교민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브라질 검찰에서 돌나라 오아시스 여러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벌금부와 및 국의 추방을 위해 자산을 동결했다는 사실과 관련 자료를 단독 입수! 영상기자의 프로듀싱 능력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약작같이 취재한 성과였다.

NEXT LEVEL

영상기자는 촬영기자인 동시에 연출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는 연출을 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능숙하게. 취재동선을 설정하고 취재기자와 스태프를 이끌며 날씨, 배경, 조명, 바람, 햇빛 등 아주 디테일한 하나하나까지 우리는 그 누구의 컨펌 없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 각 방송국 내 그 누구보다 탁월한 현장 연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능력을 제작에 활용하면 영상기자 그 나머지의 NEXT LEVEL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느덧 방송 뉴스가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메인 뉴스는 쪼개고 쪼개져 솜폭과 짬들로 최대한 짧고 빠



르게 전달되는 한편, 반대로 그 짬들을 모으고 모으고 영혼까지 끌어 모아 사람들이 봐주길 애원한다. 나에겐 '악인취재기'가 그랬다. 지금까지 쌓아온 내 능력들로는 모자라 영혼까지 쥐어짜 취재하고 촬영하고 제작했다.

오늘도 아무렇지 않게 셋톱박스

너머의 세상을 보듯, 영상기자 너머의 광야를 달려보자.

P.S. '악인취재기'는 지금 WAVVE에서 절찬리 방영 중이며 여전히 영혼까지 끌어모아 시즌2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 순간을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이제 새로운 비비고를 만나보세요

**더 맛있게,
더 즐겁게**

프레임 밖에서 영화 추천

내가 사랑한 영화 '냉정과 열정사이'

SBS A&T_ 김남성

극장으로 가는 발걸음에 묘한 설레임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영화를 보러 가며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든가? 마치 오래전 첫사랑을 재회하듯, 기대감과 실망감 언저리의 정의할 수 없는 감정들이 전날 숙취와 복잡하게 얽혀 머리를 어지럽게 했다.

2003년 개봉했던 '냉정과 열정사이'가 재개봉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영화 속 준새이가 느꼈을 기적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개봉한 지 20년 된 영화가 다시 스크린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것도 '할리웃 시리즈물'이나 '천만관객' 등의 수식어와는 거리가 먼 아날로그 감성이 물씬 풍기는 '일본감독의 멜로 영화'가.

이윽고 영화가 시작됐다. 나직이 짙막한 주인공들의 대화. 그리고 피렌체의 전경과 함께 울려 퍼지는 OST 타이틀곡 'The Whole Nine Yards'.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목울대를 치고 올라왔다. 후 하고 화끈거림이 올라와 나도 모르게 얼굴을 손으로 가려본다. (부끄럼게도) 눈에서 땀도 조금 났던 것 같다. 무슨 감정이었을까.

영화 속 아오이와 준새이는 그때 그대로인데, 나는 어느새 40대가 되어 있었다.

냉정과 열정사이를 처음 봤던 건 스무 살의 어느 가을날이었다. 서툰 학교생활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 정돈되지 못하고 갈곳 없이 방황하는 열정들. 그때의 나 역시도 그랬다. 어설프지만 반짝거리던 날들이었다. 그 시절의 추억을 간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연례행사처럼 가끔씩 이 영화를 꺼내 보곤 했지만 그사이 많은 것들이 변해갔다. 영화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지고 느꼈던 감정들이 바스라져 갈 즈음 재개봉 소식이 전해졌다.

극장에서 20년 만에 마주한 냉정과 열정사이 는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왔다.

매끈한 디지털영상에 적응된 눈앞에 펼쳐진 색바랜 피렌체 풍경은 그 자체가 하나의 영화 같았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해되지 않던 인물들의 미묘한 심리와 극적 장치들이 차분하게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단지 나이를 먹어 서릴까. 지난 시간 만큼 나의 경험에 늘어난 탓일까. 주인공들의 굵은 감정선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마빈과 메미의 감정, 조반나의 알 수 없는 행동과 이 영화가 왜 하필 피렌체와 유화

복원을 소재로 삼았는지. 준새이가 치콜리의 유화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복원해 가듯, 나는 오래전의 나를 복원해 나갔다. 스무살의 나, 나는 영화를 통해 재회한 것이다.

차창 밖으로 멀어져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영화는 점점 멀어져갔다. 고요한 암흑에 엔딩 크레딧까지 끝나자 마침내 재회의 시간이 끝났다는 서운함이 밀려왔다. 관객과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을까? 아무도 먼저 일어나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렇게 또다시 영화와 기억 없는 이별을 했다.

밀도 높은 열일곱 개의 곡으로 이루어진 OST는 영화의 장면들을 자연스레 떠오르게 하는데, 특히 음대생이 연주하던 동명의 곡 '냉정과 열정사이'의 첼로 선율은 복원되어가는 유화처럼 이 영화의 메세지를 깊게 전달한다. 차분한 기타 선율에 바이올린과 첼로가 대화하듯 교차하는 'History' 그리고 재회의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End Title까지. 열일곱 개의 곡이 마치 하나의 곡처럼 느껴진다.

언젠가 피렌체에 가게 되면 이 음악들을 들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영화 속 장소들을 거닐어 보고 싶다.

영화는 나와 작품 사이에 수많은 우주를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한 편의 영화는 거대한 태양과도 같다. 매일 뜨는 태양이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는 것처럼 영화 역시 보는 사람마다, 볼 때마다 다른 감정을 남긴다. 훗날 오늘의 감정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

흐르는 시간이 가슴 아픈 건 풍화되어 사라지는 감정들 때문이 아닌가 싶다. 찰나의 순간과 감정들이 까마득하게 잊혀지는 것이 두려워 우리는 무언가를 기록하게 된 것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해본다. 이런 작품을 마음속에 하나쯤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자 행복인지.

오늘 다시 만난 냉정과 열정사이를 통해 냉정한 40대의 삶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던 20대의 젊은 날들을 회상해 본다. 무미건조해지지 않기 위해, 메마르지 않기 위해 나는 앞으로도 몇 번이고 이 영화를 만나고, 헤어져 볼 생각이다.

〈2023 신입 – 주니어 영상기자 연수 후기〉

인연을 만나고 기대를 품다

MBC_ 김승우



입사 1주년을 앞두고 주니어 영상기자 연수에 참여하게 됐다. 연수에 참여한 대부분의 타사 동기·선배들 역시 나와 비슷한 시기에 첫 발을 디딘 이들이었다. 1년 동안 우리는 같은 현장에서 동고동락했고, 또 신입 영상기자로써 매일 새로운 상황과 현장을 맞닥뜨리면서 배우는 입장이었다. 그래서일까, 연수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모두가 1년 동안 같은 고민을 했고, 같은 어려움을 헤쳐 나가며 1년을 보냈음을 서로가 알 수 있었다.

연수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아무래도 다양한 경험을 가진 선배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취재를 위해 많은 선배 영상기자들이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바 있는데, 훗날 비슷한 곳으로 떠나게 될 수도 있는 입장에서 생생한 취재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 좋았다. 더불어 분쟁지역 취재를 떠나기 전에 앞서 챙겨야 할 요소들과, 취재 이후 이뤄져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짚어주신 것도 인상적이었다. 다만, 여전히 취재할 때 맞닥뜨리게 될 많은 제약과, 취재 인원들을 위한 물질·제

도적인 지원이 부족함을 날카롭게 말씀해 주셨는데, 본격적으로 취재 현장에서 활동하게 될 주니어 영상기자로써 앞으로 두고두고 고민해 보고 건설적인 의견을 내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뉴스라는 테두리 밖에서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긴 선배들의 경험들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양한 매체,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쏟아지는 지금, 오로지 TV 뉴스 리포트를 타깃으로 영상기자의 역량을 키우고 펄치기엔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뉴스 외에도 장편 다큐멘터리, 혹은 모바일 매체로 공개할 수 있는 형태의 숏폼 영상을 제작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남긴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향후 미래에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됐고, 동시에 다가올 그날을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뜻깊은 강연을 준비해주신 많은 영상기자 선배님들과 평생에 한 번뿐인 주니어 영상기자 연수를 준비해주신 협회의 모든 구성원분들, 언론진흥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말하는 법 배운 시간... 배움과 도전 추구하는 기자 될 것

KBS 대전_ 안성복



안녕하십니까. KBS대전총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성복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드라마 주인공에 감정 이입하여 같이 웃고 울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제가 만든 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영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매일 발생하는 사건 속에 피해자들의 눈물 섞인 호소를 듣다 보니 영상을 통해서 말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영상을 통해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뉴스 영상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깨닫게 되며 영상기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영상기자는 단순히 전달자로서의 역할보다 먼저 현장 상황을 인지하고 정확하게 객관화시키며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영상을 답아야 하며 카메라가 흥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세상을 이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다.’는 원대한 포부를 품고 영상기자로써 첫 발을 이제 내디뎠지만 슬픈 사건에는 눈물을 흘리느라, 바쁘게 돌아가는 현장에는 분위기에 휩쓸려 많은 순간을 놓치는 신입 영상기자

사와 현재 그리고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 속 영상저널리즘에 대한 고찰을 훌륭한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입 영상기자들과 한자리에 만나 함께 고민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ENG라는 장비를 가지고 기술적으로 촬영기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시청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줄지,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고 단순 촬영이 아닌 ‘기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취재를 진행하면서 영상으로

말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신입 주니어 영상기자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신 협회장님을 비롯하여 사무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모든 영상기자 선배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나은 영상기자가 되고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문성을 키우고 실력을 향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배 기자들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며, 열심히 노력하여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영상기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뉴스를 전달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명심하며, 사회에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움과 성장을 추구하며, 늘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영상기자로서의 경합을 쌓아 나가겠습니다. 협회와 함께해서 이 시간이 제게 큰 발전의 기회가 되리라 믿으며,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며 더 나은 영상기자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생’, 영상저널리즘의 ‘완생’으로 한 발 다가서다

연합뉴스TV 영상기자_ 함정대



미치지는 않았지만, 다가올 위험에 미리 대안과 대처를 배우는 방법을 고민해야겠다.


2박3일 연수를 받으면서 흥미롭게 배울 수 있었던 건 바로 영상기자 선배들이 다녀온 국제분쟁 취재였다. 영상기자라면 한 번쯤은 다녀오고 싶어 할 취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올해 있어서는 안 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다녀오신 선배들의 노하우를 들었다. 국제분쟁에 있어 영상기자의 역할, 해외분쟁 취재의 실제 등등 아직 경험이 없는 나에겐 굉장히 흥미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사실 국제분쟁에 대한 영상취재 시스템이 완벽히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쟁국가에 대한 취재의 사전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위급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무슨 장비를 활용해야 하는지, 등등... 앞으로 우리가 많은 교육을 받으며, 헤쳐 나가야 할 과제라고 느꼈다.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2박3일 동안, 신입-주니어 영상기자 연수를 받으면서 많이 배우게 되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영상기자라고 생각한다. 나를 위해, 또 대중들을 위해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영상기자가 된다는 것이 매우 힘든다고 부담이 되겠지만 그만큼 단란한 각오를 하여 많은 것을 기록하는 영상기자가 될 수 있도록 한 발짝씩 다가설 것이며, 좋은 영상기자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영상취재를 하면서 보람을 느꼈을 때가 언제였나? 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대답을 할 수 있다. 늘 영상취재하는 동안이 가장 보람 차는 순간인 것 같다고...


연합뉴스TV에 2022년 10월에 입사했다. 그 후 정신없이 1년이 지났다. 한국영상기자협회 신입-주니어기자 연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신입의 한에서만 갈 수 있고, 가서 많이 배워올 수 있다는 선배들의 조언에 무작정 지원하였다. 영상기자 선배들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까? 강릉으로 가는 KTX 안에서 기대감이 가득 차올랐다.

연수 교육 첫날, 나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목표 1순위였던 타사 동기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첫날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동기들에게 먼저 다가간 인사 하였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언젠가는 만날 같은 동지라고 생각하였다. 연수교육을 받기 전 막연하게 생각했던 교육과는 조금 다르게 다양한 교육들을 들으며 배웠다. 협회장님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영상기자의 역사와 영상 저널리즘 등 영상기자가 되려면 배워야 할 기초 학습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현

재 나는 영상 기자이지만 아직 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며 스스로 피드백을 하였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영상기자가 되려 하는지... 사실 아직도 확실한 답을 내리지는 못하였다. 교육을 받으며 평소와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AI와 영상기자 간의 관계였다. 영상기자랑 AI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나? 의구심을 품으며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받으면서 매우 놀라웠다. 요즘 AI와 ChatGPT가 급 부상하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와 편의를 제공한다.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습득한 인공지능이 영상에서도 활용되는 건 시간문제이고, 차후 영상기자의 몫까지 다가 오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였다. 사람을 대신에 인공지능이 취재하고 영상들을 담는다면 우리 자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영상기자가 된지 얼마 안 된 나에게 큰 위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아직 그런 단계에



 2023년 협·회원 인사동정
KBS 2023.11.13 김종우·보도영상국장 2023.11.14 이상구·영상취재1부장 오승근·영상취재2부장 유민철·뉴스영상콘텐츠부장 2023.11.16 조정석·보도영상국 팀장 박준석·영상취재1부 1팀장 왕인홍·영상취재1부 2팀장 조영천·영상취재2부 팀장 안용습·영상취재2부 팀장 홍성민·뉴스영상콘텐츠부 팀장 김태석·뉴스영상콘텐츠부 팀장

 영상기자 Korea Video Journalist Association
발행·편집인 나준영 편집장 현기택 편집위원 구민혁·김준형·김현가·조민웅·박태범·손지윤·윤형 이한범·임현정·좌상은 취재기자 안경숙 행정 오주하·이경선 제작 인쇄디자인 꿈 1999년 4월 23일 창간 2019년 8월 19일 등록번호 양천, 마00009(격월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영상기자협회 홈페이지 www.tvnews.or.kr 팩스 02) 3219-6478 / 전화 02) 3219-6476~7 한국영상기자협회 우) 0799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5층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지구를 다음 세대에게 공유합니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부터 다 쓴 자원을 재탄생시키는 기술까지
LG의 클린테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더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갑니다

공유하기
공공화기

공유하기
공공화기

미래, 같이

다 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